

2024년 제1회 인천서구학세미나 성과자료집

인천 서구학의 현황과 과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4년 제1회 인천서구학세미나 성과자료집

인천 서구학의 현황과 과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4년 제1회 인천서구학세미나 성과자료집

인천 서구학의 현황과 과제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 행 인 정군섭(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기 획 총 괄 서덕현(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기 획 운 영 김영준(인천서구문화원 서구학연구팀장)
집필 및 참여 임학성(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화(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안정현(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이영미(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신언호(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추교찬(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인 쇄 원문사(032-573-4982)

목 차

07	기조강연	인천 ‘서구학’의 개념 정의 및 방향성
23	제1발표	인천광역시 ‘서구’ 연구 현황 검토
43	제2발표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의 의미와 과제
65	제3발표	지역학으로서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83	지정 토론문	
95	종합토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입니다.

설레임과 부푼 희망으로 맞이한 올 한해도
어느덧 아쉬움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4년 제1회 서구학 세미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미나에서 저희 인천서구문화원이
2002년 개원부터 지켜왔던 기조를 돌아보고,
현재 ‘인천 서구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인천 서구를 주제로 하거나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및
저서들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인천서구문화원에서 발간된
향토지가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디딤돌과 원동력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무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천 서구는
단순히 도시 외형의 진보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주민들이 흘리는 땀방울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인천의 변방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의 거점도시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역문화를 위해 봉사와 헌신의 노력들이
많은 서구민들의 삶에 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수한 자국 문화의 세계화야말로
진정한 전통문화의 보존이자 올바른 전승이라 여기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빛나는 문화유산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가치창조를 통해
뒤이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회 인천 서구학 세미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애써주신 임학성 교수님, 강옥엽 박사님을 비롯한
김경화, 안정현, 이영미, 손민환, 신언호, 추교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

인천 ‘서구학’의 개념 정의 및 방향성

임학성(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지역학의 개념정의
2. 인천 ‘서구학’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3. 인천 ‘서구학’ 연구·정립의 방향성

- 기초강연 -
인천 '서구학'의 개념 정의 및 방향성

1. 지역학의 개념 정의

한국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시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지역의 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자기 지역 차원의 고유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기저로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지역학 연구는 처음에는 도 단위는 물론 시·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나중에는 구·읍·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리 단위로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성 및 정체성을 찾고자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활성화되었다.

지역학의 활성화 현상은 첫째, 지역을 살아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되살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중앙에서 독점하던 학술문화 운동에 대한 반작용이며,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 증진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지역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즉, 지역정체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여타 경쟁지역 가운데 묻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현 때문이었다.¹⁾

지역학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지역학이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역사적, 언어적, 민족적,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학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이든 간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의 성립 또는 그곳 인간의 삶에 관하여 지역의 전체 혹은 개별적인 국면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축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에 의한 해명을 시도하는 학술연구 방법이다.²⁾

즉, 지역학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 ②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과 이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학문, ③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목적적, 실천적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출발한 지역학은 우선 지역 자료 조사·수집 및 지역사 연구·정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진정한 지방(지역)자치는 ‘문화자치’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자치’는 먼저 각 지역의 역사 자료·문화적 현상의 수집·조사·기록·연구·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³⁾

1) 오영교, 『조선후기 원주의 사회와 인물 연구』(해안, 2017)에 ‘부편’으로 수록한 「지역학 연구와 강원학」, 373쪽. 이 기조강연 원고에서 서술하는 ‘지역학’의 개념과 필요성의 대부분은 오영교의 해당 글을 발췌·각색하였음을 밝힌다.

2) 오영교, 위의 책(글), 374쪽.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어느 지역이든 지역‘학’은 역사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렇지만 지역학 정립 및 그 연구가 역사학에 토대를 두는 것은 분명하나, ‘지역학=지역사’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학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인류학, 민속학, 언어학, 문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포괄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3) 김택규, 「제1장 총설」(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편, 『향토사의 길잡이』, 수서원, 1996), 8쪽.

4) 지역학 관련 논저를 검색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대한 것이 지역사/지방사/향토사와 같은 역사학 성과임을 알 수 있다.

2. 인천 ‘서구학’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내에 ‘서구학연구팀’이 조직, 편제되어 ‘서구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연구팀에서 기획, 발간한 연구서에 따르면 현 서구 지역을 ‘서곶’과 ‘검단’의 두 개 공간으로, 그리고 ‘서곶’을 남과 북의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지역민들은 현 서구 지역은 2개 또는 3개의 별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구획은 현재의 서구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모월곶면(毛月串面)과 석곶면(石串面) 지역, 그리고 김포군의 검단면(黔丹面)과 노장면(蘆長面), 마산면(馬山面)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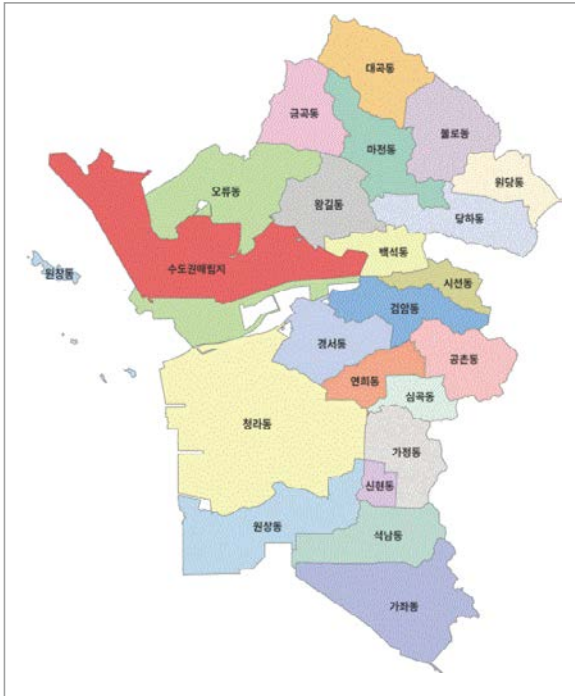
부평도호부에 속한 모월곶면과 석곶면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신설된 부천군의 서곶면(西串面)으로 통합된 뒤로부터 ‘서곶’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김포군의 검단면·노장면·마산면은 검단면(黔丹面)으로 통합되어 ‘검단’으로 불렸다. 그렇다면 1914년 기점부터 ‘서곶’과 ‘검단’이 대표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 하겠다.

〈표〉 인천광역시 서구의 구역 및 지명 변천

1789년			1914년		현재(법정동)
김포	마산면	서원리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대곡동
		대곡리		불로리	불로동
		불로리		금곡리	금곡동
		목지리		마전리	마전동
	검단면	신리		오류리	오류동
		금곡리		왕길리	왕길동
		좌동리		원당리	원당동
		마전리			
		여래리			
		고잔리			
		왕길리		당하리	당하동
		속사곶리		백석리	백석동
	노장면	안동포리		시천리	시천동
		마전리		검암리	검암동
		고산후리		고잔리	경서동
		능동리		고잔리	
		원당리		청라리	청라동
부평	모월곶면	당하리	부천군 서곶면	공촌리	공촌동
		백석리		연희리	연희동
		시천리		심곡리	심곡동
		검암리		가정리	가정동
		고잔리		포리	원창동
		난지도			
		청라도		신현리	신현동
		공촌리		고작리	석남동
	석곶면	연희리		가좌리	가좌동
		가정리			
		봉현리			
		포촌리			
		율도			
		신현리			
		번작리			
		가좌동			

현재 서구의 법정동에 해당하는 대곡동·불로동은 조선시대 김포군 마산면, 원당동·당하동은 김포군 노장면, 금곡동·마전동·오류동·왕길동은

김포군 검단면 등에 속해 있었다. 현재 서구의 북쪽에 위치한 이들 8개 법정동이 1914년 이후 ‘검단(면)’으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지도〉 인천광역시 서구 영역 및 법정동

한편, 역시 서구의 법정동인 백석동·시천동·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모월곶면, 청라동·가평동·원창동·신현동·석남동·가좌동은 부평도호부 석곶면 등에 속해 있다가 1914년에 ‘서곶(면)’으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부천군 서곶면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에 편입되어 서곶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해방 이후 1968년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인천시 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에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구되어 서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검단면은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 김포군에 속하였다가 인천이 1995년에 인천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서구는 역사적 경험을 달리했던 부평과 김포의 여러 면·리가 1995년부터 하나로 합쳐진 셈이다. 따라서 ‘서구학’(연구)은 1995년을 변곡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한 경우 ‘서구학’(연구)의 시간적 시작점은 1995년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된다. 1995년 이전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에 해당하는 부평(모월곶면, 석곶면)과 김포(검단면, 노장면, 마산면) 시절의 ‘○○학’과 ‘△△학’, 1968년 구제 실시 이후 인천(북구)과 김포(검단면) 시절의 ‘□□학’과 ‘▲▲학’, 1988년 이후 인천(서구)과 김포(검단면) 시절의 ‘●●학’과 ‘▲▲학’ 등은 ‘서구학’의 전사(前史)내지 배경 정도의 의미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9월 11일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현 서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경인 아라뱃길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시천동·검암동·오류동 일부를 ‘검단구’로 하고, 경인 아라뱃길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나머지 검암동 일부와 경서동·연화동·청라동·가정동·석남동·신현동·원창동·가좌동 등을 ‘서구’로 하여 둘로 나눈다고 한다.

이와 아울러 일부 서구 주민들은 ‘검단구’를 분리한 이후 기존의 ‘서구’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태는 추후 ‘서구학’의 입지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할 것이냐? 기로에 처하게 할 것이다.

3. 인천 ‘서구학’ 연구·정립의 방향성

지역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 연구자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대상을 놓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따라서 그 체계성을 성실하게 담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들이 풍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데 일단의 목표가 있다. 결국 지역학 연구·정립의 방향성을 어떻게, 그리고 적합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인천 ‘서구학’ 연구 및 정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역학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언급하는 게 순리일 듯하다. 첫째, 지역학 연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한국의 그 어느 지자체든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새롭고 진취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학 연구가 축

5) 오영교, 앞의 책(글), 382쪽.

적되고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셋째, 지역학 연구의 주제는 광범위해야 하는데 이는 처음 단계의 목표이겠고,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면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를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학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창출하게 될 것인데, 창출한 목적·목표가 적합하고 적절한가의 정도(程度) 측정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제 그 방향성, 물론 ‘서구학’(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① 연구 주체, ② 연구 방법, ③ 연구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겠다.

1) 연구 주체

‘서구학’을 연구하고 정립해야 할 담당자, 즉 주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서구청 및 공공 문화기관(서구문화원, 검단선사박물관 등)

둘째, 대학 연구기관(인천대 인천학연구원,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소,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등) 및 박물관

셋째, 서구 공공 기관 소속 전문 연구자

넷째, 지역 주민

‘서구학’ 연구를 담당할 주체는 일단 서구문화원 등과 같은 지역 소재 문화

6) 오영교, 앞의 책(글), 384쪽.

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단체에는 연구인력이 부족하기에 지역 소재의 대학 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의 도움을 받아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조 체제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서구학’ 연구를 소명으로 하는 전문연구자의 양성 및 배정이 필요하다. 전문연구자는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소속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연구·정립)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연계가 왜 중요한 기는 지역학이 지역 주민을 주체로 하는 종합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⁷⁾

끝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구학’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것도 바로 이 연구기관이 주도·주관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연구기관에 전문 연구자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서구문화원 내에 ‘서구학(일단)연구실’을 두어 전문 연구자를 배치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욕심을 더 부리자면 ‘~실’이 아니라 ‘~연구소’ 규모의 수준으로 확장했으면 한다.

서구 내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서구학’ 연구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그 무엇보다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행정·재정 등 제도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7) 이해준,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세창출판사, 2015, 65쪽.

2) 연구 범위

지역학은 ‘과거’ 사실을 밝히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실제적 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역사, 인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학문이며,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추구되는 글로컬(global+local)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서구학’ 연구를 목표로 기획·발간한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 총서(2023년 현재 총 22권 발간)가 역사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분야까지 망라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만, ‘서구학’이 단순히 ‘~studies’(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logy’(학문)을 지향하는 학문적 의지와 장기적 플랜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는 ‘서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를 지탱해주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지역학(지역사) 연구에서 공통적, 일반적으로 적용한 연구 주제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지리·환경 및 경관(景觀)

- 자연 지리·환경
- 인문 지리·환경
- 지질
- 경관

② 기록

- 역사 기록: 전적, 고문서, 일기, 고지도, 금석문 등
- 문학 기록: 시문, 시, 소설 등

③ 고고 · 미술

- 선사 유적 및 유물
- 역사 유적 및 유물
- 고분 문화
- 불교 미술
- 도자 · 공예

④ 역사

- 지명 유래
- 관방유적
- 유교 문화: 서원, 향교, 사당, 정려 등
- 고건축
- 연표 및 연대기

⑤ 민속 및 신앙

- 물질/유형민속과 무형민속
- 구비 전승: 전설, 동화, 속담, 수수께끼, 민요 등
- 친족 생활
- 의례: 출산, 혼례, 상례, 장례, 제례 등
- 가택 신앙
- 마을 신앙
- 세시풍속과 놀이

⑥ 천연기념물

- 동 · 식물
- 천연보호구역

⑦ 사회와 산업(경제)

- 사회 단체
- 경제 단체 및 사업체

⑧ 문화 · 예술

- 문화 · 예술 단체
- 교육기관

다음, 연구 범위에는 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요구된다.

특히 서구 지역에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이 대규모의 생활 공간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처럼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서구학’이라는 공동 인식에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구학’이라는 조어(造語)가 지역 정체성을 생각할 때나, 또는 학문적으로 볼 때 적합한 용어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고 있듯이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지리 영역/방향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심하게 말하면 1988년 ‘서구’가 탄생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심도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 잘못 지어진 구명(區名)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굳이 서구라는 구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현재의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구 주민들은 서구를 ‘북서곶’과 ‘남서곶’, 그리고 ‘검단’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구문화원에서는 서구의 도시마을지를 기획·편찬하여 『북서곶』(제1권, 2017년), 『남서곶』(제2권, 2018년), 『검단』(제3권, 2019년)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기도 하였다.

지형적으로 볼 때 북서곶은 옛 부평의 모월곶면 지역, 남서곶은 옛 부평의 석곶면 지역, 그리고 검단은 옛 김포의 검단면 지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서구가 분구된다면 ‘서구’와 ‘검단구’로 명명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옛 지명을 부활시켜 ‘서곶구’와 ‘검단구’로 하는 방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서구학’도 분리하여 ‘서곶학’과 ‘검단학’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더구나 군 단위의 각 지자체에서 중·동·서·남·북 등과 같은 방위명을 담아 ‘학’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인천광역시만 해도 기존의 방위명 구 대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담은 구명으로 변경하였고(예를 들어, ‘남구’→‘미추홀구’), 또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예를 들어,

‘중구+동구’→‘제물포구’). 이런 추세라면 인천광역시 내 구·군 중에서 방위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따라서 ‘서구학’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비록 구에서 학문 용어로 공식화 것은 아니지만 미추홀구의 주민들이 ‘학산학’을 지역학의 용어로 연구·정립하고 있는 사례는 모범적이라 하겠다. ‘학산(鶴山)’ 문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후기 인천에서 처음 서원을 건립하여 그 이름을 학산서원(鶴山書院)이라 하였듯이 ‘학산’은 인천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명칭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옛 인천의 읍치가 있던 미추홀구에서 ‘학산학’을 지역학의 용어로 삼았던 것이다.

3) 연구 방법

지역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연과 새로운 학연의 존재형태, 마을과 생활조직, 경제적 관계, 역사를 되살리는 문화활동과 외부세계와의 연계 조직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등의 학문 분과간의 실증적 연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역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세 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첫째, 중앙(또는 인천) 중심적 평가를 극복

둘째, 서구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자료를 정리, 연구하는 작업(DB 구축 등)

셋째, 서구의 문화 특성을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체계화

제1발표

인천광역시 ‘서구’ 연구 현황 검토

김경화(인하대 사학과 강사)

1. 들어가며
2.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연구성과
3.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연구사적 논란
4. 마무리

- 제1발표 -
인천광역시 '서구' 연구 현황 검토

1. 들어가며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 서북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그 면적이 강화, 옹진, 중구 다음으로 네 번째로 넓으며, 검단지역 택지지구의 입주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수도 상당히 많다. 그 남쪽으로는 미추홀구와 동구, 동쪽으로는 부평구, 계양구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서해 너머 중구 중산동과 마주한다. 그리고 북으로는 경기도 김포시 인접하다.

서구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흔적을 보여 주는 많은 유적, 유물들이 찾아 진다. 실제로 1970년대 서구 검암동, 대곡동 등지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인 지석묘가 발견된 바 있고, 2000년대 초반,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1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유적, 유물들이 대규모로 발굴되었다. 이에 서구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거대한 모종의 세력 집단이 거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대곡동 등지에서 청동기시대 묘제인 지석묘가 발견되는가 하면, 연희동에서 마한의 대표 묘제인 분구묘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 연맹왕국 시기 고대 ‘소국’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편 백제에 복속된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인천의 ‘서구’는 한반도의

변방으로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에 맞서 서해안을 방어하는 중요 요충지로 그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국가와 향리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수많은 명현, 거사들이 계속되어 배출¹⁾된 만큼 서구의 위상은 계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1968년 이 지역에 ‘서곶출장소’가 설치하였고, 1988년 마침내 지방자치구인 ‘서구’를 출범시켰다. 서구는 1970년대부터 확대된 간척사업으로 면적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의 건립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1) 인천광역시 서구출신 명사로는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 대제학 류사눌, 세종조 명신 양성지, 신희, 박동선, 항일독립투사 류완무, 심혁성 등이 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연구성과

그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연구는 인천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1965-1966년 4차에 걸쳐 공동 실시한 경서동 녹청자 요지 발굴조사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구문화원에서 제시한 논문 및 저서 목록을 주제 및 연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 고고학 및 인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관련

- 이병도,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진단학보』 3, 1935
- 최순우, 「仁川市景西洞 綠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 第7卷 第6號 (通卷71號), 한국미술사학회, 1966
- 박광성, 「金浦掘浦와轉漕倉에對하여」, 『기전문화연구』 1, 인천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1972.

- 안영, 「韓國綠靑磁에 關한 考察 :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김영원,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출토유물」,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국립중앙박물관 · 인천직할시, 1990.
- 배항섭, 「갑오개혁 전후 군사제도의 변화-해방제도와 근대적 해군창설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2001.
- 서재인, 「인천녹청자도요지 제작편년에 관한 연구」, 『경기사학』 5, 2001,
-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 이도학, 「백제국의성장파소금교역망의 확보」, 『백제연구』 23, 충남대백제연구소, 1992.
- 이종민, 「11~12세기 粗質靑磁의 계통과 편년」,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1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4
-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 『대곡동 지석묘-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 『인천의 산과 하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 김석훈, 「인천지역의 선사문화와 고고학적 과제」, 『인천학연구』 4, 인천학연구원, 2005
- 박준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원당동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약보」, 『상명사학』 12권, 10, 11, 12 합권호, 2006
- 강동석, 「인천 연안지역 지석묘사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고고학』 6권 2호, 중부고고학회, 2007
- 이종민, 「'景西洞'系 粗質靑磁의 生産과 需要」, 『인천문화연구』, 2007
-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 이한상, 「現 경서동녹청자도요지자료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논문집,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09

- 이병하, 「경서동 녹청자 재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 『인천원당동유적』, 인하대학교 박물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009
- 『인천역사 6호-인천 지명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 이종민, 「韓國 初期靑磁 生産窯址의 分布와 性格」, 『역사와 담론』 63, 호 서사학회, 2012
- 이세우 외 1명, 「인천 경서동 녹청자 태토 및 유약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0권 2호, 2013
- 『인천 가정동 구석기유적 보고서』, 서경문화재연구원, 2014
-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 『인천의 건축(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6
- 『인천 가정동 유적 I』, (재)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 이한수, 「김구, 제2의 고향 인천」, 『작가들』 61, 2017
- 『인천의 호국과 현충』,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7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8
-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상 · 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7
- 유창호,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계획」, 『인천학연구』 29, 2018
- 『인천 가정동 유적II』, (재)서해문화재연구원, 2018
- 『인천의 관방유적(상)』,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9
-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 중부고고학회, 『인천 검단의 고고학』, 진인진, 2019
- 박정환, 「영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오통 시론」, 『중앙고고연구』 33,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 『인천 검단 마전동 · 원당동 · 불로동유적 - 마전동 · 원당동-』, 재단법인

- 호남문화재연구원 · 인천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 『인천 검단 마전동 · 원당동 · 불로동유적 - 불로동 I -』, 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 · 인천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 『인천 검단 마전동 · 원당동 · 불로동유적 - 불로동 II -』, 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 · 인천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인천 대곡동 지석묘군 복원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2021
 -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옹진군-』, 문화재청, 2022
 - [도록]『흙과 불의 조화』, 검단선사박물관, 2023

2) 문화, 교육, 아동 · 청소년 관련 논문

- 이동희, 「韓國甕器의 地域別 特性」,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규식, 「인천 서구 외국어 교육 특구」, 『도시문제』 40권 445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 김명숙, 「평생학습 참여 욕구 활성화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종수 외 1명,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욕구에 대한 측정 · 분석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4권 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교육연구소, 2008
- 김영순 외 1명, 「디지털 마을지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 인천 서구 검단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 김영순 외 1명, 「지역문화교육을 위한 지명유래 전설의 스토리텔링 사례

- 연구 : 인천 검단 여래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5권 1호, 한국문화교육학회, 2010
- 김영순,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19, 인문콘텐츠학회, 2010
 - 이부웅 외 1명, 「인천 서곶옹기의 손그림 문양 연구 - 굴현동에서 수집한 옹기를 중심으로 -」, 『한국도자학연구』 7권 2호, 한국도자학회, 2011
 - 이영숙, 「인천광역시 유아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 서구지역 국 · 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윤정, 「인천지방 서곶 들노래의 음악적 특징」, 『인천학연구』 19, 2013
 - 김혜정, 「서곶들 노래」, 민속원, 2013
 -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끊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이승범 외 1명, 「스포츠활동 참여와 개인의 창의성 및 인성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9권 4호,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15
 - 문보라 외 2명,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스포츠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8권 1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5
 - 김수향, 「인천 서구 지역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실태 및 인지도 조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진화 외 1명, 「교육국제화 특구 자율시범학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6권 1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 김지혜, 「인천 서구지역 고등학생의 나트륨 섭취에 관련된 식행동 및 영양지식 조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조유나 외 1명, 「보육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및 실행 수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2권 2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 『인천의 민속(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20
- 김미연, 「인천 해안지역의 전래 민속놀이 전승 대안 연구 : 경서호상놀이 등 5개 전래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이선우 외 1명, 「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 연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2, 2022
- 한기순 외 1명, 「한국의 과학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 인천의 8구·2군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5권 5호, 한국국회학회, 2023
- 『인천의 묘역과 석조미술(상)』,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시사연구팀, 2023

3) 산업, 환경, 매립지 관련 논문

- 송기현, 「인천광역시 서구 철마산의 식물상 조사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명식 외 1명, 「간척지에서 이앙기 및 수확시기가 쌀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작물학회지』 48권 6호, 한국작물학회, 2003
- 김길중, 「인천광역시 서구 철마산의 고등 균류상 조사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송종현, 「空間變遷에 의한 地域性 考察」, 『기전문화연구』 32, 2005
- 최동배, 「주거환경에 따른 범죄 발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수연, 「인천연안 갯벌 간척에 따른 해안 환경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병혁 외 7명, 「경기도 김포, 인천 서구지역 소하천의 PCE 탈염소화 군집의 선별 및 다양성 분석」, 『미생물학회지』 45권 2호, 한국미생물학회,

2009

- 『인천의 갯벌과 간척』,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 신은철 외 2명, 「인천지역 토양오염 조사 및 해석을 통한 장래 예측 연구」, 『한국토목섬유학회논문집』 제11권 제2호, 2012년 6월
- 이경수 외 3명, 「소권역 물환경관리의 현황 및 전망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4권 3호, 한국환경기술학회, 2013
- 김옥경 외 4명, 「수도권 매립지 가치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제 공간 계획 - 2014 드림파크 국화축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한국조경학회지』 42권 4호, 한국조경학회, 2014
- 홍인경 외 3명, 「인터랙티브 인스톨 랜드스케이프로서의 화예조형」,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31권 31호, 한국화예디자인학회, 2014
- 김수영 외 2명,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 기초한 도시관리 전략 -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49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15
- 임동표 외 1명,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발병률의 지역적 특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 서형준,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정책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GRI 연구논총』 19권 2호, 경기연구원, 2017
- 서형준,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정책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GRI 연구논총』 19권 2호, 경기연구원, 2017
- 박진한 외 2명,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피해비용 추정」, 『도시연구』 14, 2018
- 홍승한 외 4명, 「인천 서구지역 소규모 산업시설 주변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 김달주 외 1명, 「매립지 기반침하 모니터링을 위한SqueeSAR 해석법과 수준측량의 비교」, 『지적과 국토정보』 48권 2호, 한국국토정보공사, 2018

- 김형섭,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 김정철 외 1명, 「인천해안지역의 난온대성 상록활엽수 겨울철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기후 요인」, 『한국조경학회지』 47권 5호, 한국조경학회, 2019
- 손승호, 「내국인 이주자의 출발지와 도착지로 본 인천시로의 이주 경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 박미옥, 「한국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소통사업 활성화방안연구-전북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권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 석호영,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된 협의체에서 체결한 합의문의 의미와 문제점-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91권 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 최솔이 외 5명, 「국내 정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구축 방법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인천 서구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 김세운 외 1명,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권 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4) 관광, 복지, 시설 관련 논문

- 신윤경, 「인천광역시 청소년 수련 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생활권 수련 시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민정,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승일, 「地域NGO의 自治團體 監視活動에 관한 研究 : 仁川市 西區 인천 연대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인천의 길과 시장』,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6
- 송영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명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천서구 노인인적 자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정진원 외 1명, 「지역불균형 시각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과의 상호작용 분석: 인천시 중구, 연수구 및 서구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9, 2012
- 염태준, 「지역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대피학교의 복합화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현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종록, 「대피학교의 대피수요인원에 기초한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고희재 외 1명, 「BIM 기반 물량산출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방안 - 인천광역시 서구 코스모 화학공장 문화상업 여가시설 업사이클링 사례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 변주영, 「전자지역화폐 플랫폼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

- 시 서구 '서로e음'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웅규, 「사운드 스케이프를 활용한 인천 서구 세어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방안」, 『한국도서연구』 34권 3호, 한국도서학회, 2022
 - 강성엽, 「더불어마을사업 제도도입 이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특성과 개선방향: 인천광역시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김성재, 「사회적 협동조합 브랜드디자인 개발 사례연구 - 꿈터 브랜드디자인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논문집)』 70,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22

이처럼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저서 및 논문의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며,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다만 '서구'를 단독 주제로 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다행히 2014년 『인천광역시 서구사』가 『서구향토지』(1997), 『서구사』(2002)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는 그 발간사에서 밝혔듯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서구의 지리와 역사를 비롯하여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집대성하였고, 특히 서구의 도시 변천사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2003~2023년까지 총 22권에 해당하는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를 발간하였다. 본 향토지는 서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편찬하여 시민들에게 서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3.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연구사적 논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해서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서구’에 대한 단독 연구는 아쉬우리만큼 많지 않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가장 큰 이유는 ‘서구’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이슈’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본장에서는 서구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사학계의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1) 마한 소국과 인천의 ‘서구’

고대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과 관련해서 주목해 보는 것은 마한의 ‘소국’과 관련해서이다.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 제국과 관련된 다음

의 기록이 전해진다.

[馬韓의 諸國으로는] 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漬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臣鬲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白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占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漬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 등 모두 50여國이 있다. 큰 나라는 萬餘家이고, 작은 나라는 數千家로서 總 10餘萬戶이다. (『三國志』 魏志 卷30 東夷傳)

기록에는 마한은 50여개의 대·소국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국명을 나열하고 있다. 마한 諸國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이병도, 천관우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중 인천지역과 관련해서 이병도는 4번째의 ‘小石索國’과 5번째 ‘大石索國’을 ‘서해 도서’ 지역일 것이라 추정하는 한편 6번째 ‘優休牟涿國’은 역대 지리서에서 유사 음운을 찾은 결과 고구려의 ‘主夫吐郡’인 부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²⁾

1988년 부평의 일부(19개동)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분구되었음을 볼 때, 이는 ‘서구’에 마한의 소국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한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 성과로 볼 수 있다. 이후 박순발이 『중국 東方言語學』에서 제공한 고대독음을

2) 이병도,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진단학보』 3, 1935, 39쪽

활용하여, ‘우휴모탁국’을 인천 계양구 일대로 비정한 바 있으며³⁾ 박찬규도 마한 소국의 방향성 및 이들이 모두 한강권역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계양구 일대가 우휴모탁국 권역이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⁴⁾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음운의 유사성에 따른 자의적인 추정만으로 위치 비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여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관우는 ‘우휴모탁국’을 춘천지역으로 보았는데, 이는 춘천의 古號인 ‘牛首’와의 비교를 통한 것이다.⁵⁾

김기섭은 ‘우휴모탁국’을 우태-비류계의 흔적으로 보고, 이를 비류세력의 근거지인 미추홀로 파악했다. 다만 논자는 ‘미추홀’을 인천지역이 아닌 연천, 파주일대의 임진강 유역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미추홀=인천이라는 그동안의 통설과는 차이가 있다.⁶⁾ 하지만 이들 역시 음운의 유사성에 근거한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의 견해와 다를게 없다. 이에 마한 소국의 위치비정, 특히 우휴모탁국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른 듯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붙었다.

최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발굴조사에서 인천지역에 마한의 무덤양식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분구묘가 발견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이들을 기존의 문헌사적 연구성과와 결부시켜 최근 분구묘가 대규모로 발견된 연희동 일대에 마한의 소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다.⁷⁾

3) 박순발,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마한, 백제와 하나되다』, 2013, 126쪽.

4) 박찬규, 「우휴모탁국과 부친」, 『동양학』 89, 2022, 76쪽.

5) 천관우,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1979, 202쪽.

6) 김기섭, 「백제의 국가성장과 沸流系의 역할」, 『淸溪史學』 16.17, 2002, 505쪽.

마한 소국의 존재를 찾는 것은 고대사 학계의 오랜 과제였다. 그런데 최근 인천 서구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발굴조사 과정에서 마한 소국의 흔적이 잇달아 찾아짐에 따라 관련 논의에 활기를 불어 넣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구지역의 고대사 연구가 좀 더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김포굴포와 ‘서구’

강화도 손돌목은 三道의 漕船이 통과하는 해로 상에 위치하였는데, 수세가 험해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많았다. 이에 험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시대 최이에 의해 처음으로 굴포천의 개착이 시도되었지만 곧 실패하였다. 이후 조선시대 김안로에 의해 다시 한번 굴포작업이 진행되어 원통현까지 이르렀으나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광성은 당시의 굴포천은 철마산에서 부평과 부천시, 서울 강서구를 지나 강서구와 김포군 고촌면 경계에서 한강으로 합수되는 하천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덧붙여 굴포운하 계획은 실패하였고, 이에 새롭게 고안된 방안이 전조창의 설치로 이는 서구 원창동 등지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경인운하계획을 언급하며 김포굴포의 역사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런데 이에 대해 김포굴포와 경인운하계획(일명 경인아라뱃길)이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류창호는 굴포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부실하며, 더욱이 이를 경인운하계획과 연관려는 것

7) 김경화, 「인천-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한국학연구』 65, 2022, 268~279쪽.

8) 박광성, 「金浦掘浦와 漕倉에 對하여」, 『기전문화연구』 1, 1972

은 해당 정권의 업적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천시 ‘서구’지역을 관통하는 경인아라뱃길을 굴포천과 관련시켜 ‘수백년 전부터(현재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에는 “천년의 약속이 흐르는 뱃길”이라 함) 염원한 숙원사업’이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⁹⁾

한강 하류에서 시작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에 이르는 경인운하는 오랜 기간 수많은 부침과 논란이 있어 왔다. 김포굴포와 경인운하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경인운하가 서구의 상징으로서 다시금 재조명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을 듯 하다.

9) 류창호,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계획」, 『인천학연구』29, 2018, 202쪽.

4. 마무리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연구사적 논의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망라되어 있다. 다만 역사학적으로 볼 때, ‘서구’ 지역 자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서구’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변방에 위치한 데다, 이 지역이 70년대 이후 형성된 매립지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의미있는 발굴성과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이 역사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인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제2발표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의 의미와 과제 - 서구문화원 발간 향토지를 중심으로

안정현(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는 글
2. '마을지(향토지)' 발간의 흐름
3. 서구문화원 '향토지'
4. 나가는 글

- 제2발표 -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의 의미와 과제
- 서구문화원 발간 향토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글

마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현장이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던 공동체였다. 그런데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공동체로서의 마을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잇을 만 하면 불거지는 이웃 간의 칼부림 사건이나 고독사,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 비교적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던 농촌마을까지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오히려 주민에게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웃 간의 불신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마을지’ 또는 ‘향토지’의 발간이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지닌 ‘마을지(향토지)’는, 근래 지역민들의 향토 의식

과 사회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향토사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시·도지(市·道誌), 시·군지(市·郡誌), 읍·면지(邑·面誌) 간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향토지(鄉土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룩해 낸 주체와 객체 그리고 매개체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향토지는 처음 향토사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 지리와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그 지역 출신의 인물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사를 하나의 독립된 역사로 보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향토사는 한국사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한국사와 병행하여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러한 향토사의 성격을 분명히 정의하고 그 위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향토지는 이제 단순한 지역의 역사 기록에 머물지 않고 지리·풍속·문학·예술·행정 등 향토에 관한 모든 사상(事象)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의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역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서구사』를 발간하였다. 이와 별도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는 2003년 인천서구지역의 설화를 모은 『천마와 아기장수 외』(이원규) 이후, 2023년 『인천 서구의 전통 시장』까지, 현재 총 22권의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를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마을지(향토지)’ 발간의 흐름

1990년대 마치 열풍이라도 불듯 ‘세계화 시대’를 외치면서 다변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커지면서 지역사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역사’ 연구는 역사적 시간의 축과 지역이라는 공간의 축, 두 축 모두 중요한 지점이다. 이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지역사’로 불릴지, ‘향토지(마을지)’로 불릴지 규정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지리·인문적 환경, 역사, 산업, 사회생활과 문화, 민속과 의례, 구비전승 등 문화유적과 고고학, 민속학적 조사사업을 바탕으로 한 시군지(市郡誌) 편찬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지역에는 임시기구로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아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교적 초기에 등장한 마을지는 마을의 주민이 아닌 지역작가협회 같은

특정 집단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래, 전설, 전통놀이 등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마을지 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도되었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한 축으로 유입되면서 마을지의 내용과 제작 방식 또한 다각화되어갔다. 마을지 제작이 눈에 띄게 증가한 2014년 이후, 가장 특징적인 마을지의 성격 변화로는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원고를 수록하거나 주민기자단이 마을 내 다른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주민참여 수준이 확장된 것을 들 수 있다.¹⁾

연구 초기에 종적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적인 관점이 우세하였다면, 점차 횡적 공간의 축을 중심으로 한 ‘향토지(마을지)’ 성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마을지의 주도적 역할도 특정 전문가 집단에서 점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기자단을 양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거나 인터뷰 등 주체적으로 마을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발간 주체에 따른 향토지(마을지)의 특성을 분석한 <표 1>을 참고하기로 하자.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향토지(마을지)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향토지를 발간하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어휘 중의 하나인 지역 ‘정체성(正體性, Identity)’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正體性) 담론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정체성을 이미 주어져 있는 고정된 실체로 볼 때 그것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

1) 김미연·김인설,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주민참여 수준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집 1호, 2018, 111쪽.

구분		마을기록형	사업수록형	절충·협력형
제작 주체	집필/ 발행	주로 전문가 집단이 집필	사업 주체 1~2명이 발행	주민 집필, 전문가 집필, 주민·전문가 협력 집필
	주민 역할	인터뷰대상자	인터뷰대상자, 공동체사업 참여자	인터뷰대상자, 공동체사업 참여자, 집필자, 집필·제작 참여자
목적		마을지 발간	마을만들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마을지는 사업보고서로 발간	마을지 제작 과정 참여 및 마을지 발간
		기록적 가치 추구	사업적 가치 추구	공동체적 가치 추구
내용 구성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이야기	마을에서 진행한 공동체 사업소개 및 진행과정	마을기록형과 사업수록형의 내용 모두 포함
		현황/역사/스토리/ 인물/장소/단체/ 주민활동	자원조사/사업추진개요/ 주민교육과정/주민활동/ 주민워크숍/마을비전수립	역사/스토리/인물/장소/ 주민활동/사업추진개요/ 주민워크숍/사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교농촌마을, 외부관광객이 많은 마을에서 제작 - 마을아카이브 및 스토리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분량 - 향후 마을공동체활동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율이 가장 높음 - 제작과정에서 주민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결합

〈표 1〉 광주시 마을지 유형별 비교

(김미연, 「마을지 유형과 제작주체 연구」,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6)

건 결과적으로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추락해버린다. 정체성을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을 단일한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추락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끊임 없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형성은 다층적이다.²⁾

정체성이 하나의 고정된 담론이 아니라 다층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지역적 특성과 이미지를 기록하는 향토지의 발간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정체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구조와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인천 서구의 경우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물질문화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시화가 진행된 남서곶 지역, 그리고 섬과 갯벌을 간척하여 새롭게 태어난 청라국제도시와 계양산에서 흘러내린 공촌천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던 북서곶 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다가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지금은 신도시가 개발 중인 검단지역 등 그 성격이 다양하며 그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양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서구의 경우 인천의 타 지역과 달리 짧게는 200여년에서 길게는 500년이 넘는 집성촌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내외의 각종 조직과 상호관계, 공동체 형성과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이다. 학문과 사상 등 집성촌의 지배문화와 민속놀이, 설화, 민요, 동제 등의 기층문화는 물론이고, 근대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생활문화까지 그 다양한 양상을 고찰해야만 한다.

2) 서남 동양학술총서 편집위원회, 「책을 펴내며」,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9, 8쪽.

3. 서구문화원 ‘향토지’

향토지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김미연³⁾은 광주시 마을지 관련 사업계획서를 분석하면서, 마을지의 가치 추구를 기록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사업적 가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기록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핵심 키워드는 자료, 정보, 역사”라고 하면서 “기존 마을지 체제에서 탈피해 스토리텔링 방식의 마을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 주민 사이의 공감과 관심, 마을 활동 참여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마을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을 브랜드를 구축하여 마을 홍보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3) 김미연, 「마을지 유형과 제작주체 연구」,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6.

내용구분		사업계획서 내용
기록적 가치	자료	향토자료 보전,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 환기, 마을에 대한 정보제공 기반구축, 기존 마을지 체제 탈피, 스토리텔링 방식의 마을사 제공
	정보	
	역사	
공동체적 가치	애착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제대로 알고 가꿔가는 초석 마련. 자연 부락 주민들의 권리 인식, 마을에 대한 애착심 향상, 마을 이야기 아카이브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 소식 전달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공동체적 가치관 회복, 지역유대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 마을이야기를 통한 공감 형성, 참여와 연대를 이끄는 매개체 기능
	자긍심	
	공감	
	관심	
	참여	
	공동체	
사업적 가치	발전방안	자발적 브랜드 형성, 마을 콘텐츠 개발 및 마을 홍보,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를 통한 마을의 브랜드화, 마을안내 가이드북 역할, 마을을 홍보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 등을 조사 연구하여 마을의 발전방안 제시
	브랜드화	
	홍보	

〈표 2〉 광주시 마을지 관련 사업계획서 내용구성(김미연, 앞의 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서구사』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서구문화원에서는 2003년 설화집 『천마와 아기장수』(이원규)를 필두로,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편(洞祭篇)』(박한준, 2005), 『서구인물사』(박한준, 2007), 『알기쉬운 서구사』(2008), 『검단의 역사와 문화』(박한준, 2009), 『근세조선의 서구인물지』(박한준, 2009)를 발간하였으며, 사진집으로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1』(2011),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2』(2013), 『사진으로 만나는 좋은 동네 서구』(2012), 그리고 『붓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인천서구 향토인물시문집』(2012),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박한준편, 2014),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2015),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오정윤 외, 2016) 등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마을지로 『인천 서구 도시

마을誌1-북서곶』(강덕우 외, 2017),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2-남서곶』(강덕우 외, 2018),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강덕우 외, 2019)와 경제·산업분야로 『인천 서구의 산업1-인천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김영덕 외, 2020), 『인천 서구의 산업2-인천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김영덕 외, 2021), 『인천 서구의 산업3-인천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김영덕 외, 2022),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허우범 외, 2023) 등 총 22권이 발간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아래의 <표 3> 과 같다.

분류	제목	저자(필자)	간행 연도
서구사	인천광역시 서구사(상) - 서구의 발자취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인천광역시 서구사(하) - 서구의 현재와 미래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역사	알기 쉬운 서구사		2008
	알기 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강덕우, 강옥엽, 문상범, 이연세, 이영태, 남동걸, 안정현	2015
설화 / 민속	천마와 아기장수	이원규	2003
	동제편	박한준	2005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박한준	2014
인물	서구인물사	박한준	2007
	근세조선의 서구인물지	박한준	2009
	붓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 - 인천서구 향토인물시문집		2012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2015
지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오정윤, 손민환, 최병훈	2016
마을지	검단의 역사와 문화	박한준	2009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1 - 북서곶	강덕우, 강옥엽, 김영덕, 김윤식, 이원규, 정군섭	2017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2 - 남서곶	강덕우, 강옥엽, 김영덕, 김윤식, 이원규, 이창섭, 윤미란, 이승희, 정영진, 이윤희	2018

분류	제목	저자(필자)	간행 연도
마을지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 - 검단	강덕우, 강옥엽, 김병욱, 김슬기, 김영덕, 김윤식, 손민환, 윤미란, 이승희, 이원규, 정영진, 이윤혜	2019
산업 / 경제	인천 서구의 산업1 - 인천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	정군섭, 김영덕, 이부웅, 이상재, 송수연, 최병훈, 허문태	2020
	인천 서구의 산업2 - 인천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	정군섭, 김영덕, 박인옥, 허우범, 김경은, 김희주, 홍명진, 송수연	2021
	인천 서구의 산업3 - 인천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	김영덕, 박창호, 박영진, 이광호, 추상현, 이광기, 김영준	2022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	김영덕, 허우범, 김진초, 추교찬, 이슬아, 김영준	2023
사진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1		2011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2		2013
	사진으로 만나는 좋은 동네 서구		2012

〈표 3〉 서구문화원 발간 향토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향토지’는 2014년 『서구사』 발간을 전후해서 내용상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인 성격은 ‘마을기록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마을기록형의 경우 필자들은 주로 전문가들이고, 주요 내용은 현황, 역사, 스토리, 인물, 장소, 민간신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시리즈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017년에 발간된 『북서곶』의 목차는 “I. 총설, II.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III. 북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IV. 북서곶의 문화유산, V. 북서곶의 인물, VI. 북서곶의 남겨진 이야기들, VIII. 북서곶 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설에서는 북서곶의 지리적 특성과 형성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2장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은 서구의 자연과 지리,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북서곶의 탄생과 변천, 행정동의 연혁, 법정동의 지명유래), 제3장 북서곶의 근현대도시화와 생활문화에는 문화와 풍습(연희동 셋말 풍경, 검암동의 한 민간 안채, 경서동 옹기전, 경서동 공동우물, 백석동 개량 부엌, 일도의 겨울, 잠령공양탑), 사회와 환경(한들방죽, 서곶골프장 준공식, 백석동 그린벨트 감시초소, 객토작업, 백석동·독정사거리 고갯길 낮춤 공사, 청라도 위문 방문), 교육과 행정(서곶국민학교와 임갑선 선생님, 고려중학교, 인광중학교, 1930년대 중반의 서곶면사무소, 북구서곶출장소), 제4장 북서곶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사적, 시 유형문화재, 기념물), 비지정문화재(유물산포지, 국방유적, 묘지, 사찰, 기타), 제5장 북서곶의 인물에는 북서곶의 선주 성씨들, 전근대 인물, 근현대인물로 나누었고, 제6장 북서곶의 남겨진 이야기들에는 남겨진 이야기 하나(계양산이야기, 검암동 보명학교와 선각자 정홍석, 구한말 북서곶의 군사기지, 북서곶의 갯벌, 길과 교통·통신 그리고 소방차), 남겨진 이야기 둘(북서곶의 교육기관, 서무정 소통과 사교의 장, 절터에서 허암지로, 문화보급의 창구-유선방송), 남겨진 이야기 셋(인천에는 인천교가 있다, 북서곶의 부자들, 시천동의 홍망성쇠, 흑돈과 점령군, 중국인민폐, 인공치하 의용군 탈출기)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북서곶의 연표를 정리하였다.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6장 북서곶의 남겨진 이야기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기억이나 구술이 첨가될 여지가 있을 뿐, 집필의 대부분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위의 목차에서 북서곶의 지역기록물로서 지역의 현재와 역사, 문화유산과 함께 부분적으로 지역민들의 삶 등 전승 문화가 실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토지가 지역 정체성 찾기, 지역문화의 특징 발굴, 지역문화 권역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더 좋은 마을만들기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

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그것을 토대로 스토리텔링도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듯하다.

《북서곶》 목차	
I. 총설	1) 사적
II.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2) 시 유형문화재
1. 서구의 자연과 지리	3) 기념물
2.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2. 비지정문화재
1) 북서곶의 탄생과 변천	1) 유물산포지
2) 행동정의 연혁	2) 국방유적
3) 법정동의 지명유래	3) 묘지
III. 북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4) 사찰
1. 문화와 풍습	5) 기타
1) 연희동 셋말 풍경	V. 북서곶의 인물
2) 검암동의 한 민간 안채	1. 북서곶의 선주 성씨들
3) 경서동 웅기전	2. 전근대 인물
4) 경서동 공동우물	3. 근현대인물
5) 백석동 개량 부엌	VI. 북서곶의 남겨진 이야기들
6) 일도의 겨울	1. 남겨진 이야기 하나
7) 잠령공양탑	1) 계양산이야기
2. 사회와 환경	2) 검암동 보명학교와 선각자 정홍석
1) 한들방죽	3) 구한말 북서곶의 군사기지
2) 서곶골프장 준공식	4) 북서곶의 갯벌
3) 백석동 그린벨트 감시초소	5) 길과 교통, 통신 그리고 소방차
	2. 남겨진 이야기 둘
	1) 북서곶의 교육기관

<p>4) 객토작업</p> <p>5) 백석동 · 독정사거리 고갯길 낮춤 공사</p> <p>6) 청라도 위문 방문</p> <p>3. 교육과 행정</p> <p>1) 서곶국민학교와 임갑선 선생님</p> <p>2) 고려중학교</p> <p>3) 인광중학교</p> <p>4) 1930년대 중반의 서곶면사무소</p> <p>5) 북구서곶출장소</p> <p>IV. 북서곶의 문화유산</p> <p>1. 지정문화재</p>	<p>2) 서무정, 소통과 사교의 장</p> <p>3) 절터에서 허암지로</p> <p>4) 문화보급의 창구-유선방송</p> <p>3. 남겨진 이야기 셋</p> <p>1) 인천에는 인천교가 있다</p> <p>2) 북서곶의 부자들</p> <p>3) 시천동의 흥망성쇠</p> <p>4) 흑돈과 점령군</p> <p>5) 중국인민폐, 인공치하 의용군 탈출기</p> <p>VIII. 북서곶 연표</p>
<p>《남서곶》 목차</p> <p>프롤로그</p> <p>I. 남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p> <p>1. 자연과 지리</p> <p>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p> <p>1) 탄생과 변천</p> <p>2) 행동정의 연혁</p> <p>3) 법정동의 지명유래</p> <p>II. 남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p> <p>1. 문화와 풍습</p> <p>1) 전통혼례</p> <p>2) 회갑연</p>	<p>III. 남서곶의 문화유산</p> <p>1. 국가지정문화재</p> <p>1) 천연기념물</p> <p>2. 시지정문화재</p> <p>1) 기념물</p> <p>3. 비지정문화재</p> <p>1) 유물산포지</p> <p>2) 국방유적</p> <p>3) 사찰</p> <p>4) 기타</p> <p>IV. 남서곶의 인물</p> <p>1. 선주 성씨들</p> <p>2. 전근대 인물</p>

<p>3) 상례모습</p> <p>4) 두래패(농악대)</p> <p>5) 백석동 개량 부엌</p> <p>6) 일도의 겨울</p> <p>7) 잠령공양탑</p> <p>2. 사회와 환경</p> <p>1) 개건너와 번지기 나루터</p> <p>2) 인천교</p> <p>3) 청송심씨 고택</p> <p>4) 원창동 당산</p> <p>5) 세어도의 전깃불</p> <p>3. 교육과 행정</p> <p>1) 가재울강습소와 가좌농민학교</p> <p>2) 석남공립국민학교</p> <p>3) 세어도분교</p> <p>4) 석남동사무소</p> <p>4. 산업</p> <p>1) 인천화력 1호기 준공</p> <p>2) 울도화력발전소</p> <p>3) 경인고속도로 준공식</p> <p>4) 원적산 관통도로 공사</p>	<p>3. 근현대인물</p> <p>V. 남서곶 이야기</p> <p>1. 옛이야기</p> <p>1)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새신랑</p> <p>2) 호랑이굴의 새끼 호랑이들</p> <p>3) 안아지고개의 도둑</p> <p>4) 저절로 열리고 닫힌 감중사의 대문</p> <p>5)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p> <p>2. 우리 동네 이야기</p> <p>1) 가정동 가슴에 짓는 정자</p> <p>2) 신현동 새오개 마을 회화나무</p> <p>3) 원창동 갯마을 이야기</p> <p>4) 석남동 거북시장과 정서진 중앙시장</p> <p>5)가좌동 부지런히 달리다</p> <p>3. 직접 듣는 이야기</p> <p>1) 새오개 마을 어른, 윤학의</p> <p>2) 청라도 도지사(島知事), 김종안</p> <p>프롤로그</p> <p>부록) 남서곶 연표</p> <p>부록) 서곶 지역 마을이름 변천사</p>
--	---

<p>《검단》 목차</p> <p>프롤로그</p> <p>I. 검단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과 지리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탄생과 변천 2) 행정동의 연혁 3) 법정동의 지명유래 <p>II. 검단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 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와 풍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단지역의 언어-검단방언 2) 동제 3) 여가생활-금강산 기행 2. 사회와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래마을 모내기 2) 독정마을 풍경 3) 안동포 고기잡이 4) 대촌마을 대홍염전 3. 교육과 행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단초등학교 2) 창신초등학교 3) 단봉초등학교 4) 검단면사무소 	<p>IV. 검단의 인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주 성씨들 2. 전근대 인물 3. 근현대인물 <p>V. 검단 이야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옛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밀마을 은행나무 2) 하룻밤 사이 부화된 달걀 3) 불로장생의 약초를 캔 만수산 4) 폭풍을 이긴 안동포의 도사공 5) 좌동 호수와 상무지 포구 6) 천하장사 이백산, 복산 형제 7) 계양산에 왕좌를 빼앗긴 분틀메 8) 오류동 회화나무 2. 우리 동네 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전동 여래마을 87년의 역사, 검단초등학교 2) 금곡동 우리 시대의 기억저장소 3) 오류동 서해 문화의 새로운 디딤돌 4) 왕길동 쉽게 잊히지 않을 이름 5) 당하동 반가운 소식이 오가는 동네 6) 원당동 향토자산의 보고 7) 불로동 차향(茶香)을 품다 8) 대곡동 사람이 나고 자라 다시 돌아가는 곳
--	--

<p>4. 산업</p> <p>1) 수도권매립지</p> <p>2) 경인아라뱃길</p> <p>3) 검단산업단지</p> <p>4) 검단신도시</p> <p>Ⅲ. 검단의 문화유산</p> <p>1. 시지정문화재</p> <p>1) 기념물</p> <p>2. 비지정문화재</p> <p>1) 유물산포지</p> <p>2) 묘지</p> <p>3) 기타</p>	<p>3. 직접 듣는 이야기</p> <p>1) 쇓골마을 토박이, 이균홍</p> <p>2)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20년, 당하초등학교 허송화 선생님</p> <p>3) 대곡동 도인돌 이야기, 인하대 박물관 박성우 선임연구원</p> <p>프롤로그</p> <p>부록) 검단 연표</p>
--	---

4. 나가는 글

2026년 7월부터는 서구에서 검단구가 새롭게 분리된다고 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까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2024년 6월 말 현재 119.06km²의 면적과 인구는 630,949명이고, 23개의 행정동과 21개의 법정동이 있기 때문이다. 면적과 인구수만 보더라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단지역의 경우 10여 년 전만 해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다른 지역까지 개발 불이 붙기 시작하여 하루가 다르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인천 서구의 민속신앙『동제편』(2005)을 보면 검단지역에만 35개의 자연부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만 남았을 뿐,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달빛 한 광주리 이고 / 바지게 넘치도록 별빛 지고 가 / 도툼말 살던 그
집 마당에 그득 부릅시다 //

개결수에 싸리나무 엮은 통발 처 살진 참게 잡고 / 깊은배미 물꼬 보리

새우 한사발 건져 / 오늘 저녁엔 구수하게 된장 끓이고 / 남는 건 겨울
 밤 주전부리로 말려둬시다 //
 해지면 따뜻하게 군불 지피고 / 귀뚜라미 목메는 사연 읽으며 / 한들 삼
 시다//
 동이점모퉁이 차부 가는 눈길에 첫 발자국 새기며 / 전깃줄 그 많은 제
 비처럼 / 아이들 기르던 이야기하며 / 그리 삼시다 //
 한들벌 가득한 노을에도 바람 한 줌에도 / 쇠마담 냄새 없지만//
 여보 / 한들 가 삼시다⁴⁾

최근 검암의 백석동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연마을이었던 한들 마을은 사라지고, ‘한들마을 입구’라는 버스정류장 이름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마을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간직하고 지역민의 정서를 형성하는 장소로서 공간의 정체성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다. 또한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 그 공간에의 소속감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고자 하는 향토애와 연결되어 있다.

지역사로서 ‘서구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 못지않게 소규모의 마을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의 ‘마을지’처럼 서구의 향토지도 서술 지역을 각각의 마을로 그 공간 범위를 좀 더 세분하고, 내용도 마을 사람들과 단순히 소통을 넘어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심웅식, 『한들아파트2』, 『좌회전 신호가 저녁까지 길다』, 현대시학사, 2023.

《참고문헌》

- 김희태, 「마을지 편찬의 현황과 과제」,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향토사 연구』 11집, 1999.
- 이창기, 「마을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작: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편), 『충남지역 마을지 총서』(대원사, 2006)」,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72집, 2006.
- 김경옥, 「마을연구와 ‘마을조사’ 그리고 ‘마을지’에 대한 학제적 접근」, 『호서 문학』 46집, 2007.
- 김영순 · 임지혜, 「디지털 마을지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인천 서구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언어와 문화』 6권 3호, 2010.
- 김덕목,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마을지의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민속학』 58집, 2013. 11.
- 김미연, 「마을지 유형과 제작 주체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6.
- 김미연 · 김민설,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 계: 주민참여 수준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집 1호, 2018.
- 김지욱, 「마을지 작업의 효용성을 위한 민속학적 접근- 이천신민기록자 작업 마을지의 민속지적 이해」, 경기민속학회, 『경기민속학』 6호, 2022.
- 한정혜, 「시민기록자로 걸어온 시간과 단상들- 시민기록자의 활동과 역할 인식」, 경기민속학회, 『경기민속학』 6호, 2022.
- 최낙진, 「오성찬의 ‘마을지(誌)’ 기록에 관한 연구: 총서(叢書)로서의 『제주의 마을』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97호, 2020. 12.

제3발표

지역학으로서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이영미(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2. 서구 관련 연구의 역사와 현황
3. '서구학'으로 가는 길: 과제와 제언

- 제3발표 -

지역학으로서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1. 들어가며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래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할 목적으로 ‘지방학(local studies)’ 또는 ‘지역학(regional studies)’이 출현하였다. 오늘날 지역학은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을 성공적으로 마케팅한다는 실용적이고도 현실적인 목표 아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와 지원을 받아, 지역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및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적 지역 연구로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서울학이 지역학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도시들은 물론 시군 단위에서도 지역학 연구를 진행 중이고, 지역학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마을’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인천광역시 서구에서의 지역학 연구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아닌가 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한국지역사의 위상과 방법적 가능성의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2017(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hhcs_003_0010_0010_0020_0030).

혹자는 서구가 인천에서 소위 ‘잘나가는’ 상황인데 굳이 지역학 연구를 해야 하나고 반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서구는 인천 광역시의 행정 구역들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중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면적이 넓고(2022년 기준으로 약 119.1km²) 인구가 가장 많은 곳(2024년 6월 기준으로 약 631,000명)이다. 그러나 서구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도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 서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인천의 주변부로 인식되어 왔고, 청라국제도시 지역은 1970년대 후반까지 바다였으며, 검단신도시 지역은 인천에 편입된 지 약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서구만의 고유한 지역정체성이라는 것이 딱히 없었거나 있었다라든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재료로 하여 지역정체성의 정립을 돕는 지역학 연구는 오늘날 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서구가 현대적이기만 하고 무미건조한 아파트 숲으로 기억될지,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할지는 지역학 연구의 성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서구에는 일찍부터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많다. 본 발표문은 기존의 서구 관련 연구 성과들을 개괄하여 서구 지역학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서구 지역학 연구의 ‘서구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서구 관련 연구의 역사와 현황

발표자가 서구문화원에서 받은 목록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인천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1965-1966년 4차에 걸쳐 공동 실시한 경서동 녹청자 요지 발굴 조사이다. 정식 발굴 조사 보고서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는 1990년에 발행되었으나, 1966년 최순우가 발굴 조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연구의 물꼬가 터졌다. 역사학에서는 조선 시대의 세곡 임시 보관 장소였던 전조창(轉漕倉)에 관한 박광성의 논문과 백제국의 소금 확보 및 교역 체계에 관한 이도학의 논문이 전부인 듯하다. 따라서 1966-1992년 생산된 서구 관련 연구 성과는 경서동 녹청자 요지 관련 논문 및 보고서 4편과 역사학 논문 2편, 총 6편으로 집계되었다.

- ① 최순우, 「인천시 경서동 녹청자 요지 발굴 조사 기요」, 『미술사학연구』 71, 1966.
- ② 박광성, 「김포굴포와 전조창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1, 1972.
- ③ 안 영, 「한국 녹청자에 관한 연구: 인천시 경서동 녹청자 요지를 중심으로

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④ 이동희, 「한국 용기의 지역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⑤ 국립중앙박물관 편, 정양모 · 김영원 · 구일회 공저,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인천직할시, 1990.
- ⑥ 이도학, 「백제국의 성장과 소금 교역망의 확보」, 『백제연구』 23, 1992.

21세기에는 교육, 복지,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한편,²⁾ 역사 및 문화 관련 논문들도 다수 공간되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서동 녹청자 요지 관련 연구로, 녹청자도요지자료관의 개관 및 발전과 맞물려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논문 7편이 나왔다.³⁾

최근 10년간 후속 연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연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천의 선사 시대에 관한 고고학 분야의 논문 및 보고서 4편이다. 2005-2007년 발간된 해당 고고학 연구 성과들은 선사 시대 때부터 인천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한편 미술, 음악 및 민속 분야에서 각각 논문 1편씩이 생산되었고, 역사학에서는 아라뱃길과 관련하여 일제의 경인운하 계획을 살펴본 류창호의 논문이 나왔다. 그리하여 21세기에 생산된 서구 관련 연구 성과 중 현안 연구를 제외한 지역학 연구 성과는 총 15편으로 집계되었다.

2) 해당 연구 성과들은 본 발표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는 지역학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역사와 문화 등 인문학 중심이기 때문이다. 가령 경기학은 “경기도 지역에 관한 지식을 다루”고 “인문, 사회, 자연 등 경기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경기학의 총체성을 지향하면서 ‘역사’와 ‘문화’ 등 인문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외 다른 지역의 지역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2002년 10월 25일 개관한 녹청자도요지자료관은 2010년 11월 19일 신축 건물로 이전 개관하였고, 2011년 11월 7일 인천서구녹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① 서재인, 「인천 녹청자 도요지 제작 편년에 관한 연구」, 『경기사학』 5, 2001.
- ② 이종민, 「11-12세기 조질 청자의 계통과 편년」, 『미술사학』 18, 2004.
- ③ 김석훈, 「인천 지역의 선사 문화와 고고학적 과제」, 『인천학연구』 4, 2005.
- ④ 박준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원당동 청동기 시대 유적 발굴 조사약보」, 『상명사학』 10, 2006.
- ⑤ 강동석, 「인천 연안 지역 지식묘 사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고고학』 6-2, 2007.
- ⑥ 이종민, 「경서동계 조질 청자의 생산과 수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발표문, 2007.
- ⑦ 정훈진 · 현남주, 「인천 검단 지역 문화 유적 조사 개보」,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2, 2007.
- ⑧ 고상순, 「경서동 녹청자 재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⑨ 이한상, 「현 경서동녹청자도요지자료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26, 2009.
- ⑩ 이종민, 「한국 초기 청자 생산 요지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담론』 63, 2012.
- ⑪ 이세우 · 조일목, 「인천 경서동 녹청자 태토 및 유약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0-2, 2013.
- ⑫ 이부웅 · 이꽃담, 「인천 서곶 옹기의 손그림 문양 연구: 굴현동에서 수집한 옹기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7-2, 2011.
- ⑬ 이윤정, 「인천 지방 서곶 들노래의 음악적 특징」, 『인천학연구』 19, 2013.
- ⑭ 류창호,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 계획」, 『인천학연구』 29, 2018.
- ⑮ 김미연, 「인천 해안 지역의 전래 민속놀이 전승 대안 연구」, 청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21세기에는 위 논문 15편 외에도 인천광역시 발행자로 나선 저서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정책적 지역학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문화재과 등 인천광역시 기관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저서 15종이 출판되었다.

- ①『인천의 산과 하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 ②『인천의 길과 시장』,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6.
- ③『인천의 문화 유산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 ④『인천의 갯벌과 간척』,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 ⑤『인천 지명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 ⑥『끊임없는 개척 정신 새로운 도약』,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⑦『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⑧『인천의 지명 (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 ⑨『인천의 건축 (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6.
- ⑩『인천의 섬과 역사 문화 유산 (상·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7.
- ⑪『인천의 호국과 현충』,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7.
- ⑫『인천의 문화 사적과 역사 터 (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8.
- ⑬『인천의 관방 유적 (상)』,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9.
- ⑭『인천의 민속 (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20.
- ⑮『인천의 묘역과 석조 미술 (상)』,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시사연구팀, 2023.

인천광역시 발행 저서들은 그 제목이 “인천의”로 시작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서구를 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여러 자치구들 중의 하나로 다루

었다. 따라서 서구에 관한 내용이 일부에 그치고 상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2002년 7월 15일 개원)이 발간한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총서>(이하 ‘<총서>’로 줄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서구를 내밀하게 검토한, 본격적인 서구 지역학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총서>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30여 년간 총 22권이 발간되었다.

- ①『인천 서구 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 장수 외』, 이원규 편저, 2003.
- ②『서구의 문화』, 김윤식 · 이원규 공편, 2004.

개원 초기인 2003-2004년에는 인천의 대표 문인들이 서구문화원의 의뢰를 받아 책을 편찬하였다. 1권『인천 서구 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 장수 외』는 소설가 이원규가 엮었다. 이원규는 부친 이훈익이 채록한 서곶 지역 설화와 자신이 조사한 검단 지역 설화 조사에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구전 설화 30편, 지명 고사 23편, 인물 고사 17편을 소개하였다. 2권『서구의 문화』는 시인 김윤식과 이원규가 엮어 2004년 초 발간되었다. 이 책은『인천광역시 서구사』(2004),『인천 서구 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 장수 외』, 정기 간행물『문화 서구』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정리한 것으로, 역사, 지리, 지명, 설화, 종교, 풍습, 인물 등 서구를 전반적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연표와 문화재 현황을 부록으로 두어 유익하다.

- ③『인천 서구의 민속 신앙: 동제편』, 박한준 저, 2005.
- ④『인천 서구 향토지: 서곶인물사편』, 박한준 저, 2007.
- ⑤『알기 쉬운 서구사』, 2008.
- ⑥『인천 서구 향토지: 검단의 역사와 문화』, 박한준 저, 2009.

⑦ 『인천 서구 향토지: 근세 조선 서구인물지』, 박한준 저, 2009.

2005년 2월 서구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되고 서구문화원 수석 부원장 박한준이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4권에서 처음으로 ‘인천 서구 향토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오늘날 총서명의 원형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3·4권과 6·7권을 직접 집필하여 서구 지역학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3권 『인천 서구의 민속 신앙: 동제편』은 오늘날의 서구 지역에서 옛적부터 실시된 마을 제사(동제)를 상세하게 조사하였고, 4권 『인천 서구 향토지: 서곶인물사편』은 서곶 지역의 선주(先住) 성씨들과 인물들을 백석동부터 가좌동에 이르기까지 동별로 소개하였다. 검단 지역의 선주 성씨들과 인물들은 6권 『인천 서구 향토지: 검단의 역사와 문화』에서 다루어졌고, 서곶과 검단을 합한 서구 지역의 선주 성씨들과 인물들은 7권 『인천 서구 향토지: 근세 조선 서구인물지』로서 종합되었다. 박한준이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동안 5권 『알기 쉬운 서구사』도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2004년 서구청이 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사』를 약 200쪽 분량으로 축약한 것이었다.

⑧ 『인천 서구 향토지: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 사진으로 읽는 서구 옛 이야기』, 2011.

⑨ 『붓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 인천 서구 향토인물시문집』, 2012.

⑩ 『인천 서구 향토지: 사진으로 만나는 좋은 동네 서구』, 2012.

⑪ 『인천 서구 향토지: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 못다한 이야기, 그리운 사람들』, 2013.

2010년대 초에는 박한준이 3대 원장에 취임하고 정군섭이 향토문화연구

소장을 맡으면서 <총서> 8-11권이 출간되었다. ‘인천 서구 향토지’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었지만(9권 제외), 북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개선되고 제목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이 눈에 띈다. 또한 8-11권은 ‘읽는 책’이었던 1-7권과 달리 ‘보는 책’이었다. 8권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 사진으로 읽는 서구 옛 이야기』는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서구 및 서구민들의 아련한 흑백 사진들을, 10권 『사진으로 만나는 좋은 동네 서구』는 서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컬러 사진들을 실었다. 11권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 못다한 이야기, 그리운 사람들』은 8권에 미처 신지 못한 자료들과 추후 수집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화보집은 그 자체로 지역학 연구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오랫동안 자료를 간직해 온 지역민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선사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9권 『붓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 인천 서구 향토인물시문집』은 오래 전 서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시조를 원문, 독음, 해석까지 소개한 시문집이다. 게다가 이 책에 수록된 사진들은 오늘날의 서예가들이 해당 시조를 자신의 필체로 작품화한 것이다. 대단히 멋진 기획이었다고 생각된다.

- ⑫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2: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2014.
- ⑬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3: 알기 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2015.
- ⑭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4: 인천 서구의 분묘 유적과 금석문』, 2015.
- ⑮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5: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2016.

2014-2016년에는 <총서> 12-14권이 발행되었다. 처음으로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권수를 매기기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은 체제를 완성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12권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는 과거에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수호신이었으나 현재는 방치 또는

훼손되고 있는 지정 보호수 14수와 비지정 보호수 32수를 다루었다. 14권 『인천 서구의 분묘 유적과 금석문』은 전통 시대의 분묘 유적 18개(지정 문화재 8점, 비지정 문화재 10점)와 해당 유적의 금석문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이다. 15권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세어도 등 8개 섬과 간척 사업으로 사라진 26개의 섬을 소개하였다. 이 책들은 모두 개발의 논리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서구의 자연 환경과 문화 유산을 기억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권은 2014년에 새롭게 편찬된 『인천광역시 서구사』를 한 권에 담아낸 것으로, 2008년에 나온 5권 『알기 쉬운 서구사』와 같은 성격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⑩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6: 인천 서구 도시마을지 1 — 북서곶』, 2017.
- ⑪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7: 인천 서구 도시마을지 2 — 남서곶』, 2018.
- ⑫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8: 인천 서구 도시마을지 3 — 검단』, 2019.

2017-2019년에는 <총서> 16-18권이 ‘인천 서구 도시마을지’ 1-3권으로서 발행되었다. 이는 미추홀구가 2015-2027년 발행한 ‘도시마을생활사’ 시리즈와 비슷한 성격의 기획으로 보이는데, 서구를 북서곶(모월곶면 지역), 남서곶(석곶면 지역), 검단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형성과 역사적 변천,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 문화, 문화 유산, 인물, 이야기 등을 다루었다. 3권 모두에 같은 목차를 적용하여 형식과 내용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한 것, 서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빠짐없이 다룬 것, 지역민들만 알고 있는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한 것, 토박이들의 구술을 받은 것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 ⑬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9: 인천 서구의 산업 1 -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

장』, 2020.

⑳『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20: 인천 서구의 산업 2 -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 2021.

㉑『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21: 인천 서구의 산업 3 - 서구 산업의 미래와 도약』, 2022.

㉒『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22: 인천 서구의 전통 시장』, 2023.

2020년대에는 <총서> 19-22권이 ‘인천 서구의 산업’ 1-3권으로 발행되었다. 19권『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은 옹기 산업, 경인고속도로, 울도화력 발전소 등을, 20권『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은 인천지방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서구목재산업단지, 영창약기, 경동산업, 극동요업 등을, 21권은 물류와 유통, 매립지 문제, 로봇 산업,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을 다루었다. 작년에 출간된『인천 서구의 전통 시장』은 검단재래시장, 거북시장, 가좌시장, 축산물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을 흥미롭게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한 서구 관련 연구가 있다. 하나는 서곶 지역 농민들의 농요를 연구한『서곶 들노래』(김혜정, 민속원, 2014), 다른 하나는 검단신도시 조성 지역에 관한 5개 기관의 조사 연구 성과인『인천 검단의 고고학』(중부고고학회, 진인진, 2019)이다.『서곶 들노래』와『인천 검단의 고고학』은 첫째,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전적으로 다루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소비되는 비매품으로서 아니라 일반 도서로서 출판된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구 관련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에서의 서구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서구의 대표 유적인 경서동 낙청자 요지에 관한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둘째, 2000년대에는 경서동 낙청자 요지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청동기 시대 유적인 검단신도시 지역에 관한 연

구가 생산되었다. 첫째와 둘째는 유적의 존재가 지역학 연구에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 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서구 향토지 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서구 지역학 연구의 허브로서 기능해 왔다. 그동안의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 서구 향토지 총서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3. ‘서구학’으로 가는 길: 과제와 제언

‘○○학’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수도와 6개 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시 단위에서도 ○○학연구소 또는 ○○학연구센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1993년 9월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13년 12월 성남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술지로는 1994년 5월 『성남문화연구』를 창간하여 지금까지 연1회 발간 중이다. 성남시의 인구는 2024년 6월 기준 91만 7,192명이다.

성남시와 인접한 도시들을 살펴보자. 인구가 39만 3,286명인 광주시는 2002년 광주문화원 부설 광주향토문화연구소를 발족하고 2016년 3월 광주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구가 108만 2,468명인 용인시는 1994년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2010년 용인문화연구소를 거쳐 용인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경기도 도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충청도로 가 보면 인구 13만 명이 안 되는 제천과 10만 명이 조금 넘는 공주에도 제천학연구원과 공주학연구원이 있고, 그밖에도 얼마든지 예

를 들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 중에서 ‘○○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가 있을까? 일단 서울에서는 최근 ‘종로학’이라는 언설이 등장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평화교육센터 종로평생교육원이 올해 4월 ‘종로학 연구회’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열었고,⁴⁾ 불과 얼마 전인 7월 9일 “종로와 세종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1회 디지털 ‘종로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⁵⁾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목표를 따지는 일은 발표자의 몫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종로학연구회’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특별시의 승인과 지원을 받는 공식 연구 기관으로 승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학 외에 ‘○○학’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로 본다면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부평학 스토리텔러’나 ‘계양학 교실’ 등의 용어를 쓴 예가 발견되지만 많지는 않으며, 남동학, 연수학, 미추홀학, 중구학, 동구학, 강화학, 옹진학 등은 검색되지 않는다. 반면 서구에서는 ‘서구학 에세이’라든지 ‘서구학 발간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행사의 이름도 ‘서구학 세미나’이고, 발표자가 받은 제목도 ‘지역학으로서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였다. ‘서구학’이라는 이름을 쓰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발표자는 ‘서구학’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두어 가지 의견을 밝히고 싶다. 첫 번째는 서구학의 ‘서구’가 가지는 모호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구’라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모호하다. 우선은 서구학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관한 학문으로 직결시키기 어렵다. 서구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

4) <http://www.thekoreajournal.com/View.aspx?No=3202146>.

5) <http://www.thekoreajournal.com/View.aspx?No=3292408>.

는 자치구명이 아니고, 인천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도 서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를 ‘西區’가 아닌 ‘西歐’로 이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발표자가 몇몇 사람들에게 ‘서구학’이 무슨 말인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서구의 학문 전반’ 또는 ‘서양에 관하여 다루는 학문’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발표자는 고유 지명이 아닌데다 혼동의 가능성까지 있는 ‘서구’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독립하는 약 2년 후에는 ‘서구’ 대신 ‘서곶’이 가능할 것이다.

발표자의 두 번째 의견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때로는 무비판적으로 ‘학’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지역학 연구를 ‘서구학’으로 명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하자면 연구 재료의 부족 내지 고갈이다. 학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구 재료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서구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구에 관한 연구가 서구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고,⁶⁾ 다른 하나는 조만간 검단구의 분구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학’을 지지하기 전에 최소한 향후 10년간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토 연구와 지역학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향토 연구는 한 지역에서 수십 년, 혹은 조상 대대로 산 사람이 애향심에 근거하여 그곳의 역사와 문화에 천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동네가 최고!”라는 결론으로 수렴되기 쉽다. 반면 지역학은 다원적이고 상호적인 자기인식이며 향토 연구와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다. 어떻게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혹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

6) 정군섭 원장은 『인천 서구의 산업 2 —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 발간사에서 〈총서〉가 “인천 서구 지역의 ‘거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이다. 서구는 앞으로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여 지역을 연구하는 태도는 사실 지역학의 측면에서는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지역학을 표방하는 연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기관명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발표문의 성격상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음을 독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견해이지만 서구 지역학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정토론문

제1발표 지정토론 :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인천광역시 ‘서구’ 연구 현황 검토」에 대한 토론문

제2발표 지정토론 : 신언호(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제3발표 지정토론 : 추교찬(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이영미, 「지역학으로서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에 토론문

- 지정토론문 -

<제1발표 지정토론>

「인천광역시 ‘서구’ 연구 현황 검토」에 대한 토론문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예로부터 통치 단위(행정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다. 조선시대 연혁(沿革), 방리(坊里), 호구(戶口), 풍속(風俗), 고적(古蹟), 토산(土産), 인물(人物), 명승(名勝), 선생안(先生案) 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읍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연구’라기 보다는 일종의 ‘정리’ 또는 ‘통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서구의 장소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발표자께서는 서구 관련 연구 성과를 ▲역사, 고고학 및 인천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관련 연구, ▲문화, 교육,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산업, 환경, 매립지 관련 연구, ▲관광, 복지, 시설 관련 연구 등으로 잘 정리하였다. 하지만 발표자의 인식처럼, 그동안 서구 연구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나 서구를 단독으로 연구한 성과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서구향토지』(1997), 『서구사』(2002), 『인천광역시 서구사』(2014)

등이 발간되어 서구 자료를 집대성하고 도시 변천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는 공감을 표한다. 또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2003~2023)가 서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발표자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발표에 대한 질의보다는 발표자가 언급한 ▲연구 성과, ▲연구사적 논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서구 연구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지금 서구의 행정 구역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익히 알다시피, 조선시대 모월곶면과 서곶면이 1914년 부천군 출범과 함께 서곶면으로 통합되었고, 1940년 인천부 서곶출장소가 생겨났으며, 해방 이후 1945년 인천시 서곶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68년 구제 실시와 함께 서곶출장소와 부평출장소가 합쳐져 북구로 되었다가, 1988년 서구가 분구되었으며, 1995년 검단면이 서구에 통합되었다.

위와 같이 서구는 공간 범위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다. 현재 서구 연구는 서구 행정구역 상에 국한되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산하에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 영역에서 서구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서구문화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업 영역이 행정 구역상 서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라, 다른 지자체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서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염두에 두고, 서구 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역사 연구 같은 경우에 지금의 행정 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부평부 소속 15개 면의 ‘공유 역사’가 분명 존재한다. 계양구, 부평구, 서구, 부천시 등에서 퍼낸 구사, 시사 등에서 공유 역사가 중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서구 산하 기관이 아닌, 다른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들도 서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면 서구 연구 성과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의견이다. 예를 들면, 조기준의 『부평사연구』(1994), 『부평사연구 증보』(1995), 『지명유래지-부평의 땅이름』(1999)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저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부평부 소속 15개 면을 공간적 범위로 다루고 있어서, 현재 서구의 역사와 산천, 고적, 인물, 사화(史話), 전설, 지명 유래, 소지명 등까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서구학’ 연구 자료를 목록화할 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서구 연구의 폭을 더욱 더 확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2026년 7월 서구와 검단구의 분구가 서구 연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 변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사적 논란이다. 발표자는 “서구 단독 연구는 아쉬우리만큼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원인을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마한 소국 ▲ 김포굴포를 둘러싼 역사학계의 논란을 소개하였다.

마한 소국과 관련한 음운의 유사성이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히 공감한다. 서구 일대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분구묘가 발굴되면서 마한 소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김포 굴포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가 상당히 흥미롭다. 기존의 학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연구로 상당히 인상 깊게 보았다.

발표자의 의견처럼 학계의 이슈는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게끔 한다. 하지만 단순한 이슈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사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주목하지 않는 한계가 명확하다.

개인적으로는 발표자가 지적한 ‘주제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이슈’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들면, 공모를 통하여 지역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기관 등이 제법 있다. 다소 인위적인 방법이고,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역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임에는 이견이 없다. 내실과 함께 외연 확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지속된다면, 많은 분야에서의 서구 연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2발표 지정토론>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신언호(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

발표처럼 ‘향토 문화’는 지역이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시간에 종속되어 형성된다. 여기에 ‘향토 문화’는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즉, 지역민과 소통하며 상호작용하여 현재성을 지닌다. 따라서 향토 문화의 정리인 향토지에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간의 향토지의 흐름은 구술생애사 등의 형태로 구사나 마을지, 또는 구술집에서 인터뷰 대상자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민이 직접 집필자로 참여하는 마을지의 유형도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지역 공동체인 ‘서구 기록가’를 통해 서구 기록 사업인 ‘사업 수록형’의 맵핑북을 제작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서구 청라호수공원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다만 이것은 ‘마을 기록형’으로서의 서구학과는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다. 논의의 결론을 염두에 둘

때, 발표자는 <표 1>에서 제시된 유형 중 ‘절충·협력형’을 모범적인(궁극적인) 마을지의 모델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각 유형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마을지의 주제는 보편성 또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마을지의 특정 주제가 다른 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보듯이 2023년에 서구문화원에서 전통시장을 다룬 것은 ‘다른 구에도 있으니까 주제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루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더구나 서구는 다른 구·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통시장도 여러 개이다.)

그런데 각각의 장소는 나름의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장소가 다른 의미도 다르다. 이러한 장소가 지니는 의미는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장소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틀이 되고, 이 틀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인천 서구의 산업』은 세부 내용에서 서구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 기획이라고 판단한다.

발표에서 다룬 ‘인천서구 도시마을지’는 전형적인 ‘마을 기록형’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래서 자주 다수의 마을지는 교양서와 학술서의 경계에 있기도 하다. 그런데 발표자는 다양한 분야의 마을 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지 제작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문화원에서는 발표에서 인용된 분류의 마을지 유형 2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자의 건의가 다양한 분야의 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즉 집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이를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3.

어떤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대상의 특수성을 부각하려면 다른 대상과 비교하거나 그 대상이 속한 전체를 조감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발표자는 인천 중구문화원의 마을지 시리즈에 집필자로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마을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나아가 발표자가 추후 논의를 확장하여 인천의 모든 구·군의 마을지에 대한 특성을 비교한다면 서구 마을지의 특수성은 물론, 인천의 마을지 전반에 대하여 매우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補) 『서구사』가 간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발표자는 2010년 『웅진군지』와 2019년 『동구사』의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간인 2014년에는 『서구사』에 필자로 참여했었는데, 위의 두 향토지와 『서구사』는 내용이나 형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며, 언젠가 간행될 ‘서구사’는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하는지, 또는 반영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補) 2026년에 서구는 분구라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 구군 중 방위 지명으로 남은 곳은 서구뿐이다. ‘서구’라는 이름을 변경할 것이라면 서구문화원에서 이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배경의 논리를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발표 지정토론>

이영미, 「지역학으로서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에 토론문

추교찬(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연구사)

이 발표문은 서구 관련 연구 성과들을 개괄하여 서구 지역학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서구 지역학 연구의 ‘서구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문제의식과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특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발표자의 논의에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여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지역학 연구의 의미를 거칠게 표현하자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문화원 개원 이후 발행한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총서> 22권 중 사진집을 제외한 19권의 시대와 분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책제목	권수
고세 · 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2015) · 근세조선 서구인물지(2009) · 서곶인물사(西串人物史)(2007) ·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2016) · 봇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2012) · 인천 서구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장수 외」 (2003) 	6권
근대 ·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2014) · 인천 서구의 산업 (1)(2020) · 인천 서구의 산업 (2)(2021) · 인천 서구의 산업 (3)(2022) ·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2023) · 인천 서구의 민속신앙 동제(2005) 	6권
통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1)(2017)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2)(2018)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2019) ·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2015) · 검단의 역사와 문화(2009) · 알기쉬운 서구사(2008) · 서구의 문화(2004) 	7권

분야	책제목	권수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2015) 	1권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세조선 서구인물지(2009) · 서곶인물사(西串人物史)(2007) · 봇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2012) 	3권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2016) 	1권
민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장수 외」 (2003) ·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2014) · 인천 서구의 민속신앙 동제(2005) 	3권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의 산업 (1)(2020) · 인천 서구의 산업 (2)(2021) · 인천 서구의 산업 (3)(2022) ·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2023) 	4권
역사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1)(2017)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2)(2018)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2019) ·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2015) · 검단의 역사와 문화(2009) · 알기쉬운 서구사(2008) · 서구의 문화(2004) 	7권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대·중세 6권, 근대·현대 6권, 통사류 7권이다. 다음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역사일반 7권, 산업 4권, 민속 3권, 인물 3권, 지리 1권, 문화재 1권이다. 전체적으로 서구사 일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문화재·인물·민속도 통사에서 한 항목을 차지하기에 실제로 새로운 주제나 내용은 산업·지리 분야이며 또한 시기적으로 현대이다. 앞으로 서구 지역사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려운 고대·중세에 대한 연구보다 서구의 ‘현재’ 모습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기억’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구성하고,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향토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서구 지역 주민들의 구성은 대부분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유입된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동의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현실 삶을 드러내는 것이 추후 서구사 혹은 서구학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와 연구 방법론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역사학 분야에서 도시사·일상사·민중사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획자의 역량과 함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문화원은 대부분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회성 성과물을 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심도깊은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과거 발행된 책의 겉장 제목만 바꿔 출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의 주제선정 안목, 장기적 계획과 추진력이 더욱 요구된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사회(좌장):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제1주제 발표 : **김경화**(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2주제 발표 : **안정현**(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제3주제 발표 : **이영미**(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제1주제 토론 :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제2주제 토론 : **신언호**(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제3주제 토론 : **추교찬**(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 종합토론 -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신 선생님들은 발표를 지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다 지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시작할 때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제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서덕현 국장님께서 해주셨어. 그래서 또 하기 이제 잠깐 이제 그래도 앞 시간 하셨던 보다는 짧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선생님들은 일단 손민환 선생님의 경우에 부평 역사 박물관에 계신다는 거 아실 거고요. 사학을 전공을 했고 그동안 부평역사박물관에 재직을 하면서 부평 지역은 물론 서구 계양 지역의 유물 이런 유적 조사에도 관심과 참여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원호 선생님은 인천학연구원의 학술연구 교수고요.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셨지만 평소에도 인천 또 서구 향토사에 관심을 가지고 향토지 편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교찬 선생님 인하대학교 사학과 출신이면서 사학을 전공을 했고 인하대 박물관의 학예사 또 지금은 이제 파독 근로자 기념관 학예 연구사로 계시고요. 또 이분도 타 지역에 시흥에도 예전에 좀 가 계셨죠. 그래서 향토지 편찬 사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 주제와도 관련이 많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중복적으로 우리 또 앞서 우리 서덕현 국장님이 잘 소개를 했겠지만 오늘 인천 서구학의 현황과 과제 이걸 주제로 서구에 대한 연

구 현황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게 그 다음에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 발간의 의미 그리고 서구학 정립의 가능성과 과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향후 방향을 좀 담론해 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총 90분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4시 반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조금 제한을 조금 두려고 그러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면 배도 고프실 거고 좀 힘이 드실 것 같아서 가능한 조금 시간을 줄여서 가보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방식은 1주제의 토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2·3주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조금 괜찮다면 시간을 가만히 해서 제가 보면서 플로어에 우리 오랫동안 계셨던 방청객분들도 한마디씩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김정화 선생이 발표했던 제1주제 서구 연구 현황 검토에 대해서 손민환 선생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토론 의뢰를 받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서구문화원에서 향토지 발간 사업에 참여를 했던 게 몇 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더라고요. 딱 10년 전입니다.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그리고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이 작업을 할 때 거의 여름에 두 달 동안은 실제 금석문을 탁본을 하러 다녔었던 기억이 있고 또 『서구에 사라진 섬 남은섬』, 『인천 서구 도시마을 3권 검토』 이렇게 총 4건에 대해서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서구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다른 문화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탁월한 성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라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 산하 문화원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것을 저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학술 연구입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라는 게 지금 서구문학에서 하는 이 향토지 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향토지 발간은 조금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주민하고 좀 가까운 그런 식으로 책을 발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학술적인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크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제가 담당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권씩 책을 냈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정말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이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1년에 한 권은 너무 과도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책을 찍어내는 건 사실 1년에 한 권씩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퀄리티 정말 좋은 책 그리고 이게 지역에 의미가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 권을 찍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간을 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정말 많은 설득 과정 끝에 결국에 그렇게 이제 2년 내지 3년 정도 그 단위 사업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서두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김정화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 해 주셨는데 서구연구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서구만을 단독으로 연구하는 성과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발표 자료를 받고 “또 다른 게 있을까?”라고 또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서구에 대해서 연구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구 단위 군 단위에서 이렇게 연구 그런 자료 연구의 자료가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향토지를 연간 하나씩 한 번씩 발간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의보다는 발표자가 언급한 연구 성과 그리고 연구 사정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앞에서 기초강연이나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구 서구학의 연구 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발표 토론 의뢰를 받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서구학의 공간적인 범위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있어서 지금의 이런 공간의 범위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서곶이라든지 그런 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부평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계양구가 있고 그 옆으로 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다 부평도호부라는 이름으로 한 구역이 묶여 있었던 것을 지금은 다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구사나 부평사나 계양사에서 말할 때 다 자기의 역사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행정구역적으로 나뉘져 있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서구가 분구를 앞둔 시점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생각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구학이라는 말을 할 때 서구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서구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남긴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부평문화원의 초대 원장이신 조기준 원장님께서 『부평사연구』 그리고 『부평사연구증보』, 『지명유래집』 이런 책들을 19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발간을 하셨는데 제목만 보면 부평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평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지역들을 다 연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목만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서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그런 기록을 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구 연구 성과에 함께 포함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경화 선생님께서 연구사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한 소국에 대한 이슈나 김포 굴포에 대한 역사학계의 그런 논란들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이런 이슈들이 학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서구를 바로 연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가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존에 했던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거나 그런 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선 아까 묘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논문이 1~2개 나왔다고 해서 학자들이 주목을 해서 “이제 나는 서구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 연구 성과를 가지고 책을 만든다거나 단행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연구 총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지자체들이나 기관들이 인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위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구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서구문화원에서 좀 앞장 서서서 하게 되면은 이런 서구와 관련된 서구학 지역 연구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이상 손민환 선생님은 두 가지를 잘 요약해 주었어요. 첫째가 서구 연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한 그래서 부평 서구 계양 부천이 이 공유한 역사를 함께 고려를 해서 서구 연구의 폭을 확장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의 부족 문제 이거보다는 지역사회 연구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이슈의 중요성을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화 선생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인하대학교 강사)

일단 토론을 맡아주신 손민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먼저 알려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조금 많이 했는데 아까 발표 때 조금 그 점이 이제 조금 듣기에 조금 죄송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처음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서구사 라는 의미로 이제 발표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 서구사 당연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서구학이 라는 좀 더 큰 개념의 주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한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까 막 기침을 참으면서 막 저도 생각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서구학이 발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만 해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려면 지금 선생님께서 손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연구 재료 재료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지원의 이슈라고 되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연구자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연구를 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손민환 선생님 말씀과는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재료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연구 재료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인천광역시 서구로 분구된 게 88년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을 토대로 서구를 연구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저처럼 고대사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은 결코 가능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정

적으로 말씀드릴 정도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디지털적 범위 내에서 아까 부평도호부를 포함하는 전체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리적 범위 내에서 부평과 김포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역사권 공통의 역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구사를 봤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무래도 연구의 재료가 풍부해지겠죠.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서구만 이렇게 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지원에 따르면 재료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따라서 연구자들은 당연히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제가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고 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점을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네 오늘 저기 손민환 선생님의 질문도 김경화 선생님의 이야기에 보충적인 이야기니까 아마도 서로 난타전을 벌일 만큼 토론이 될 거는 아니라고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답은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안정현 선생이 발표한 2주제 “서구문화원 발간 향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에 있어서 향토지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신언호 선생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언호(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원호라고 합니다.

저는 안정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오

늘 이제 발표를 쭉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 겹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좀 다른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서문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현 선생님께서 약간은 아까 발표하셨을 때 조금 약간 일부러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아마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연구해 오신 향토문화총서가 스물몇 권을 일단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점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논문을 쓴 것에서 유형 몇 개를 소개 하셨어요. 마을기록형이라든가 보고서 형식의 것과 절충협력형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서구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향토문화총서 말고도 사실은 요새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꼭 서구문화원뿐만 아니라 문화원 추세가 투트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토론 해 주신 손민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평구가 오히려 좀 우리 전반적인 인천의 구군 입장에서 보면 약간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토지라든가 주제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이렇게 모은 설명 문화의 성격이라면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전문 학술서에 가깝습니다. 이름 자체가 연구총서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시장 다른 저는 전통시장 다른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전통시장이 다 아시는 것처럼

럼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구에 따라서는 전통시장을 다룰 수 없는 구나 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이 그래도 한 6개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를 아마 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몇 개 돼지요.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게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계획을 세운 그러니까 바라는 어떤 지향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어떤 목표에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좀 약간 먼저 좀 다루게 됐습니다만 전통시장을 낸 것 자체는 “다른 곳에 했으니까 여기서 있는 게 너무 그냥 비슷한 주제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나온 서구의 전통시장이 되게 유의미한 작업이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거기 번호 2번에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을지 그러니까 동별이나 아까 우리 이제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분구가 되면 당연히 전반적인 어떤 영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범위가 좁아지면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동별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아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아마 연구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높겠죠. 많아지겠죠.

그럴 때 그런 동별 깊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1차적인 전반적인 것이 끝나면 아마 주제별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 다른 구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주제의 책들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는 없지만 서구만의 특별한 주제별의

책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 서구의 산업』이라고 해서 3권 시리즈로 내신 책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다른 구에는 없는 주제의 책을 내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서구라는 지역이 급속한 어떤 변화의 속도를 맞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통 문화들이 급격히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첨단 도시들이 막 건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 세 권의 책에서 아주 전통적인 것의 것부터 최근의 어떤 아주 모던한 것의 어떤 산업 경향까지를,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 보면 약간은 좀 뒤라고 그럴까 뚝뚝 떨어진 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의 시도 자체가 좋은 하나의 하나의 주제이지 않았나 제목으로 보여진 그런 주제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발표자께서 안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본 처음의 틀은 전문가들이 하는 ‘마을기록형’이 바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에는 ‘절충협력형’,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느냐라는 게 아마 관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인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글이 그러니까 평상시 때 혼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쓰기라는 게 조금은 약간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게 됐을 때 일반 시민이 참여하시게 됐을 때 글의 어떤 주제나 이런 것은 되게 좋을 수 있지만은 질은 어느 경우에는 좀 담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문가 집단 참여도 얘기하셨지만 그 제가 여기 토론문에는 아까 글만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정현 선생님께서 절충형 영역을 이제 궁극적인 마을책 모델로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찾

아보니까 그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시민 참여형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응답하라 가정오거리』이었던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여러 직접 사시는 시민들이 여가향토 문화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매년 참여하는 그런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꼭 전문가의 글과 시민의 글이 섞이지 않고 별도의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 설정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정현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이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39페이지 아래 쪽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거는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만 게 아니고 안정현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많은 구에 마지 작업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마 구사(區史) 종류에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제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기왕에 ‘서구향토문화지’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한번 조사하셨을 때 분명히 어떤 드러나는 특징이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신 예를 들어서 『웅진군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중구문화원의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중구문화원의 마을지에 거의 시리즈로 거기서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매년 아마 필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구문화원과 중구문화원의 마을지의 특징? 이런 것이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시면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 이걸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거 받기 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구 되고 나서 과연 이게 서구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서구 사실은 이런 것의 이론적 바탕을 서구문화원이 해줘야 될 텐데. 물론 작업이야 이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문화원에서 그런 이론적 바탕을 제시를 아마 당연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서구를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 사실 저도 서곶이라는 이름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역사성도 있고 해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이 서구라는 이름을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서구문화원도 이름이 아까 앞에 나왔지만 향토문화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미 산업에 대한 주제를 담음으로 해서 이미 향토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의 이름도 이제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혹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우리 이영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에 향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좁아지니까 분명히 범위가 좁아진 만큼 그 영역에 대해서 깊게 분명히 조사하시고 연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향토문화연구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마 앞으로 향후 주제들을 아마 고민을 하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 보니까 이제 주제들이 겹쳐서 이게 이제 안정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하던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안정현 선생님께서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3가지 질문에다가 2가지 보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이 향토지 마을이라는 이 주도적 역할에 특정 전문가 집단에서 점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에 ‘절충협력형’과 관계된 거 이걸 여쭙고자 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 그걸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첫째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다양한 분야의 마을 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 마을지 제작에 집필까지 주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서구와 중구 마을지에서의 어떤 유사점 왜냐하면 우리 안정현 선생이 『웅진군지』 하고 『동구사』 편찬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러고서 『서구사』에서도 글을 쓰셨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험이 『서구사』의 내용의 형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특징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바로 서구문화원에 오히려 오신 분들 전체 또 서구문화원에 특히 제안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분구를 앞두고 이 서구의 구명 변경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 어떤 걸 쓰면 좋겠는가 이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서구문화원계도 드리는 거고 안정현 선생님계도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정현 선생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정현(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부족한 발표문을 읽고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마을지가 올바른 형태다 이런 거를 꼭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마을 기록형'이라고 이야기되려면 최소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글을 써야 된다는 얘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초기에 '마을기록형'이라고 봤지만 과연 그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최소한도 “인천에서 이 분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언급될 정도로 전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데요. 그냥 수필식으로 그냥 느낌을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록형이 되려면 선행돼야 될 작업이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런 기록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마을 주민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큰 거대한 범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지’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얘데요. 작은 소규모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때 지금 우리가 제가 처음에 지도를 먼저 보자고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뭐야 우리 서구에 동의 행정동이 26개인가 24개가 그렇게 되죠. 행정동, 법정동 이렇게 아무튼 둘 다 이렇게 봐도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스물 몇 개가 돼요. 그거를 3권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6권이 나왔죠. 중구 같은 경우는 6권이 나왔어요. 중구 면적은 넓다고 하지만 바다 빼면 사실은 면적은 아까 강화, 옹진, 중구가 넓다고 그랬는데 강화, 옹진, 중구의 바다 빼고서 그냥 육지 면적으로만 따지면 서구가 제일 넓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바다에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좁은 동네에서도 6권이 나왔어요. 저기 북성동 송월동은 월미도가 따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과연 서구는 그 넓은 땅을 가지고서 3권으로 하셨을때 아쉬운 점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매핑인가 이런 걸 한다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넓은 면에서 서구사하고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한 해에 하나씩 내야 낼 거라면 장기적으로 한 5년 치 계획을 좀 세우고, 매년 하나씩 할 때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요. 이것을 지금의 임기에서 나는 이것까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하면, 한가지를 오래 했으면 한 3년 뒤에 할 것을 계획하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직접 구술도 같이 하면 됩니다. 구술이 처음에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으로 저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하면서 요런 부분은 좀 빼고 이거는 더 가서 심도 있게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저기 해가지고 그걸 받아왔을 때 점점 보완이 되면서 그런 연습이 쌓이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진도 그 지역 사람들이 찍게 되면 더 잘할 거 아니예요 물론 사진을 잘 찍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하면 단점은 뭐예요? 본인이 주어진 재료만 찍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역 중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시장이라든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한 작업이에요. 중요한 작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주체는 상인들도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

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시장을 어떻게 했을까 최소한도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채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론 대화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목소리인지 필자의 목소리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그 쓴 집필자들이 작가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언급하고 있는가? 서술되고 있는가?”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검암동 한들 마을 사람들부터 “예전에 동제같은 것 지낼 때 장을 어디서 보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양곡 김포장에서 왔다는 얘기에요.

서구의 시장이 ‘정서진시장’ 이런 시장들이 쪽 있지만 거기가 제가 얘기하는 지금의 백석동이라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은 딴 데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부평 지역도 아마 황어장에서 부평 쪽으로 넘어갔지요. 우선 그 시장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 대한 안배가 전혀 조금 없지 않았나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얘기죠. 향토지로서 1, 2, 3 나온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지역을 세분화시키고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 각자 고민하는 걸로 하시죠.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아니 그거 저기 서구문화원에도 제안한 거지만 분구 앞두고 하는 그거는 선생님 의견은 별로 안 내고 싶으신 거예요?

안정현(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검단은 검단구고 서구는 글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동명 정할 때 아라동같이 그런 식으로만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대곡마을에는 원래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유 마을들이 있었는데 아라뱃길 옆이라고 아라동으로 했다는 얘기 듣고서는 사실은 조금 많은 실망을 했는데 실수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우선 빼고 아무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저기 우리 문화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분구 했을 때 이름을 명칭을 서구 말고 다른 이름으로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정군섭(인천서구문화원장)

제 의견은요. 아까 선생님들이 주제 발표하면서 책에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전날 사용하던 서곶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곶구로 하면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 여기서 살던 그분들보다 외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될 수 있으면 고유의 명칭을 살려줌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일단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의 고향 아납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켜주고 하면 이제 더 많은 이득이 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결정을 하면은 조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라동이 나옵니다.

저 아라동 할 때도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쪽 편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그

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입주도 안 했는데 입주 예정자 아파트 무슨 아파트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의 공갈 협박을 해요. 이거 안 해주면 우리는 끝까지 와서 맨날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데려서 당신 이 자리에서 공갈 협박하는 거야. 아라동이 이 지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아라뱃길이라는 것은 여러 동이 같이 경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동에서 사용을 하면 그건 불합리하다. 그 지역이 고산이라고 옛 이름이 좋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동은 완전히 포기하고 고산동으로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투표했는데 7대6으로 한 표 차이로 졌어요.

근데 가장 슬픈 게 뭐냐 하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아라동이라는 이름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 표 때문에 자기 지역 이름도 다 그냥 없애고요. 그래서 참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우리 2년 후에 구명칭 정하실 때 좋은 말씀하셔서 여기 지역에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네 감사합니다.

안정현(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마디 하면 제가 이 동네에서 문학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서곶문학회로 지어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름 정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드리면 좋겠네요. 끝으로 우리 이영미 선생이 발표한 제3주제 “지역학으로서의 서구학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추교찬 선생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추교찬(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네 추교찬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명 기능을 변화시키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향토’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토’의 시대, ‘향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향토’의 고향, 고향이라는 의미로 ‘향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향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유행된 게 1920~30년대일 거예요. 이 때 일본에서 향토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향토사에 대한 연구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붐이 한반도로 건너와 가지고 ‘향토연구’, ‘향토문화연구’라는 용어를 신문에서 많이 유통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은 ‘목포의 눈물’, 이나영의 ‘목포의 눈물’이 향토에서 있는 문화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노래로 만든 게 이제 목표인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향토’라는 용어는 또 어디서 생겼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화 1920년대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산업화되면서 산업화의 다양한 폐해들이 생기자 이것들을 그런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적 개념으로 나온 게 어떤 낭만주의 사조거든요. 시골에 대한 낭만 시골에 대한 낭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크송이니 독일

어로 폴스바겐 그것도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향토’라는 개념이 이제 1920~30년대에 등장해가지고 이 2024년에 들어와서는 향토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이 거의 정지됐다고 왜냐면은 ‘향토’는 사라지고 향토를 대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향토’는 점점 이제 서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전통시대의 고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외지인들이 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지인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시화됐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향토’라는 용어가 뭐랄까 쓸 수 없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하나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문화원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은데요. 서구문화원은 좀 늦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늦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문화원이 1980년대 정도에 생겼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문화원 이후에 각 지역마다 문화재단들이 생겨요. 서구문화재단들도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지역 사회에서의 문화원이 가지고 지역 문화를 부흥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는 문화재단과 함께 어떤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문화원이라는 것이 자기 입지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포함되면서 ‘무슨 학’, ‘서구학’ 이런 개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이영미 선생님의 토론문인데요. 근데 제가 별도로 이영미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할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제가 이제 다른 글들을 먼저 다 읽어봤었는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이제 지역학 연구의 의미를 거칠게 표현하자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구문화원에서 발간된 『인천서구문화향토지총서』 22건 중에서 이 사진집을 제외하고 1권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뭐라고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시대별로 보면은 고대와 중세가 6권이고 근대 현대가 6건 그리고 통사류가 7건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자면은 역사 일반이 7건, 산업 4권, 민속 3권, 인물 3권, 지리 1권, 문화재 1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구사 일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문화재 이런 것들도 각각 한 항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주제나 내용은 이제 산업 지리 분야이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현대사 역사적으로 보자면 현대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구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보다는 좀 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할 수 있는 근현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통의 개혁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향토사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현재 문화원 이사님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경험했었던 문화원 이사님들은 대부분 다 지역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지역주민들은 알다시피 다 거의 대부분 외지인이 점점더 훨씬 많죠. 훨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나가야 될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좀 필요한 어떤 역사적 역사적 연구 분야로서는 현대사나 아니면 민중사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 지금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

법들을 통해야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이제 문화원 사업라는 게 보통 천 만 원 가지고 책 쓰고 나면 500만원이 이제 출판비로 나가고 500만원 가지고 연구 진행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원 예산 중에서 연구 조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다 인건비지.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면은 마을지 방식의 방식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을 하면은 발굴 보고서를 내요. 보고서를 냈을 때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게 자료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더라는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끝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문화 그러니까 지역 문화원에서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을 출판하는데, 아까 발표자분이나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꼭 1년마다 한 번씩 책을 내야 되면 제 생각에는 고고학의 발굴 보고서처럼 자료 수집 자체를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자료 수집을 글 쓰는 사람한테 너가 수집을 해가지고 글을 써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러기보다는 지역 문화원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면은 역할 자체를 책 발간의 목표 자체를 이제 PDF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도 되니까 그런 자료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좀 저장하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들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전문가 연구자들이 그걸 인용할 수 있거든요. 인용해가지고 여기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내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저기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이상 추교찬 선생의 말은 논의를 어떤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첨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향토사도 하고 또 문화원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를 주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토론을 붙여야 될 만큼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의 의견이시니까 오늘의 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갈 텐데요.

우선 서구 지역사회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의 의견은 자료 부족으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려운 고대 중세에 대한 연구보다는 서구의 현재 모습을 다양한 분야, 이를테면 도시사, 일상사, 민중사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획자의 역량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필요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마 여기 앉으셔서 여러 가지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복합적으로 첨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영미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영미(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추교찬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추교찬 선생님도 근대사 전공이시고 저도 근대사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대 중세에 대한 연구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면 좋겠고 이제 근대사 하는 사람들은 또 근대사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제 앞선 선생님들께서 고대 중세 연구해 놓으셨지만 원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롭게 발견하고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고대 중세 또 연구하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고 또 더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지원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저는 그것과 함께 일정 연구 기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사, 일상사, 민중사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자고 하면 연구자가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또 이야기 듣고 또 책상 앞에 앉아서 글 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서구문화원에서 매년 책을 내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정말 대단한 작업이신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책을 내려고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부를 덜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주제 넘게 좀 제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그렇게 매년 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연구를 게을리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연구자들을 포섭해서 글 한 쪽지씩 쓰게 하는 것보다는 한 연구자가 단독 저서를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성들여 쓰는 것이 서구학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루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제 약정이 된 세 분의 토론은 이제 다 들었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우리 발표자나 토론자분 계세요? 혹시 나 이 말 꼭 하고 집에 가야 돼. 저기 계시네.

추교찬

저기 저기 이영미 선생님 발표문에 보면은 이제 2014년에 민속원에서 저기 『서구들노래』라는 책이 출판됐잖아요.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 발굴을 했는데 이게 이용되나요? 전승되나요?

정군섭(인천서구문화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곶들노래 보존회에서) 하고 있어요.

추교찬

못 들어봐가지고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그러면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 나 뭔가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질문 간단하게

강덕우(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아무튼 뒤늦게 토론회만 들었는데 아무튼 이 앞에 내용도 잠깐 읽어 봐서 소득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의 시사편찬 분들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담당자분들도 관계된 분들 지역학 관련된 분들을 가능한 한 앞으로는 무조건 참석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퀄리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게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 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거 해봐야 아무튼 이 사회가 뼈를 깎아야 되는 그런 현실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구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1년 안에 예산 세워서 집필자를 발굴해서 집필자에 의뢰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단지 그것이 시간의 문제라면 조금 미리미리 중장기 계획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최소한 2~3년 앞에 거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 집필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이런 시간의 문제를 좀 그러니까 커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올해 하는 거 올해 주제 정해서 올해 발표자 올해 집필자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년이라도 앞당겨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내년에 무엇 했고 후년에 뭐 할 거 최소한 그 후에 이게 한 최소 3년 치는 미리미리 나와주면은 거기에 걸맞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겠다 하는 얘기들이 하나 더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거에 또 하나 추가해서 한다면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도 그렇고 다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 어떤 전문가 연구 계획서를 공유하는 방법도 하나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예산은 적지만 서구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계획서를 내주세요.” 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뭔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면 팀을 이뤄서 어떤 좋은 주제를 본인이 내든가 하는 것도 뭔가 좀 퀄리티가 높아지는 데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

강옥엽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말씀을 먼저 하시네. 질문 주세요.

최범자(중구문화원 사무국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퀄리티 문제 책을 매년 발간한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 장이 우리 문화원 직원들이 야단 맞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물론 뜻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다 한 번 이렇게 뵈면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세요.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깐 더 고생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없는 예산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인천 서구가 88년에 분구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생각보다 발전의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화원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기 내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되 지금 제언 들은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직 제가 끝을 안 냈습니다.

두 분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수고하신 직원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 가야 되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토론은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문화원에 조금 정리 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 책자로도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오늘의 토론회의 결과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서구학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연구 자료의 공간적 범위를 부평 계양 부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 둘째 연구 주제의 중요 이슈화라는 이런 거 모색 외에도 연구를 독려해 줄 수 있는 지원의 이슈화가 필요하다.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시고 우리 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수고가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분야와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또 기획자의 어떤 역량도 요구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 마을지라 불리는 향토지 편찬에서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되 특히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궁극적으로 서구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범위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요구된다. 이것은 우리 임학성 선생님 얘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2026년이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가 될 텐데 이 서구학의 명칭에서부터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서곶구의 그런 역사성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토론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차후에 인천 특히 서구 구민들께서 서구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발표 토론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것을 좀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 종합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서덕현 사무국장)

네 장시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문화원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조언들 참고해서 보다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원으로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인천 서구학 세미나는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또 두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또 이 서구에 대한 짧게나마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오늘 깊게 이야기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향토문화연구소가 만

들어지면서 당시 향토문화연구소장님이셨던 전 박한준 원장님께서 혼자 집필 하시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2015년도에 상임연구원이 향토문화연구소에 첫 배치가 됐는데 혼자서 향토사 연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은 올해부터 향토문화연구소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서구학연구팀으로 조직 개편 하였고, 김영준 연구원이 연구팀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팀원을 새롭게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했었던 제1회 서구학 세미나가 오늘은 좀 부족했지만 이것을 양분 삼아 앞으로는 더 큰 의미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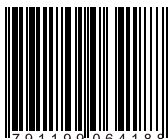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비매품/무료

03090



9 791199 064188
ISBN 979-11-990641-8-8